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19호

Wednesday, May 15, 2024 A

워싱턴지역 진짜 실업률 “3%가 아니라 17.9%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최근 실업률이 2.8%로 사실상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싱크탱크 루드윅 연구소가 연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워싱턴메트로지역 실질 실업률은 17.9%에 달했다.

연방노동부가 산정하는 실업률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일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고용상태인 모든 근로자를 무차별하게 취급한다. 하지만 실질 실업률은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지만 급여수준과 조건 등이 자신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아 파트타임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를 실업자로 분류한다. 이런 경우 총고용인구 대비 취업인구는 크게 줄어들어 결국 6배 이상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버지니아 지역 실질 실업률은 샬롯츠빌이 32%, 블랙스버그가 25.7%, 로아노크가 19.8%, 리치몬드가 19.2%, 버지니아 비치가 18.6%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국 평균 실질 실업률이 24.2%로, 작년 평균 23%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 라레도의 실질 실업률



은 52%, 맥알렌은 48%, 일리노이 카본데일은 39%, 유타 세인트 조지는 37%에 달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질 실업률에 타당한 풀타임 일자리는 지역별 생활임금을 규정하는 ‘MIT 생활임금 계산기’에서 발표하는 시간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MIT 생활임금 계산기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부채나 저축없이 소비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전 연소득은 15만183달러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의

시간급은 36.10달러였다. 이 가족의 분야별 소비액은 음식(1만5264달러), 차일드케어(3만9301달러), 의료(9578달러), 주택 렌트/모기지(2만7726달러), 교통/차량모기지(1만6744달러), 사회생활(5553달러), 인터넷/셀폰(2626달러), 기타(1만238달러), 세금(2만3151달러)였다.

이 가족은 고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도 소비 충당을 위해 고용주가 지원하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 기여액 각출도 불가능한 상태로, 저축액이 제로였다.

김옥재 기자

신흥 강대국 부상한 한국, 세계질서 관리 기여해야

우려는 적었고 기대는 많았다. 한국에 대한 미국 외교통들의 입장이었다. 필자가 얼마 전 미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빙의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친 외교적 수사에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각이 유력한 전문가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고려하는 인사들은 없는 듯하다. 주한미군 규모는 미 국방수권법이 2만8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 혼자 힘으로 결정할 수 없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는 협상용 카드, 과잉 반응 금물
워싱턴 전문가들 대만해협 무력충돌 등 전쟁가능성 낮게 봐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할 수도 있어
한·미 동맹 기반한 ‘회복력에 의한 제약’ 전략 강구해 나가야

미국의 전략적 핵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초당적 목표다. 이를 위해 주한·주일 미군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다. 재집권에 성공해도 4년 재임 이후 사법 리스크를 직면할 수 있는 트럼프로서 공화당 주류의 뜻을 거스르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워싱턴 정책통들은 당분간 대만해협 무력 충돌을 비롯한 중국발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2027년 대만침공설’이 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1~2년 전과는 온도 차가 느껴졌다. 미 해군대학 앤드류 에릭슨 교수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가 속도가 우려되지만, 단기적으로 미군의 군사적 역력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방연구원(IDA) 다니엘 취바사는 과거에도 최

악의 시나리오 예측은 대부분 틀렸다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증대된 국력과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많았다. 워싱턴에서 한국의 위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높았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던 에드 로이스 전 의원은 미국 정·관·재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서 이제는 일본의 존재감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 90명의 상·하원 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트럼프 2기 입각이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주요 7개국(G7)에서 캐나다를 한국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10면 ‘신흥 강대국’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들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교통사고 치료 전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4년 임상경험의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관절 클리닉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손발 통증 및 저림
- ▷ 좌골 신경통

- 최신 물리치료, X-Ray 장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중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www.jungmercyclinic.com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우일연 “나도 한국 예술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

“요즘 한국에서는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창의성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에게 진정한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논픽션 『주인 노예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로 미국 풀리처상을 수상한 한인 2세 우일연 작가는 13일(현지시간) 전화·e-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 작가는 “세계 감동을 준 한국 문학작품과 영화가 너무 많아 하나도 빼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는 ‘미나리’였고 소설 중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한국 예술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가 있었던 미 남부 조지아주에서 흑인 노예 부부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실화를 다뤘다.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나 피부색이 얼었던 앨런 크래프트는 백인 농장주로, 남편 윌리엄은 앨런의 노예로 각각 변장하고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

한국계 전기부문 첫 풀리처상
창의력 폭발한 한국, 자부심의 원천
‘미나리’ ‘채식주의자’ 기억에 남아 수상작인 『주인 노예 남편 아내』 사실 묘사에 힘써, 판단은 독자 몫

를 향해 탈출했다. 탈출에 성공 후 영국으로 이주한 부부는 1860년 『자유를 위해 1000마일을 달린다(Running a Thousand Miles for Freedom)』라는 책을 내고 노예제의 철폐를 외쳤다.

“책을 쓰기 전 가장 영감을 준 게 있다면, ‘앨런 크래프트가 영감의 원천이었다. 자유를 향한 탈출을 다룬 정말 멋진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았다. 1860년 출판된 『자유를 위해 1000마일을 달린다』에서 내려티브의 주인공은 남편인 윌리엄이었기 때문에 앨런의 목소리를 찾기 어려웠다. 앨런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신문이든, 기록 자료든, 편지든 다치는 대로 다양한 문헌을 살펴봐야 했다.”

“집필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 다닐 때 『자유를 위해 1000마일을 달린다』를 처음 읽고 흠뻑 매료됐다. 이후 20여 년 동안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했

다. 그들은 원작에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들이 답하지 않은 많은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다른 종류의 책을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원작과 차별화된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더 중요했다. ‘스토리에 어떻게 생동감을 더 붙여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했던 대목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은 분들은 크래프트 부부를 자유를 위해 싸운 미국의 위대한 영웅, 나아가 세계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행동주의에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을 쓸 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고 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상황과 환경, 그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모든 증거를 제공하되 독자들에게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는 작가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제일 아니니까. 다양한 사람을 가능한 한

온전히 불러오는 것이 제 일이다.”

“다음 작품 집필 계획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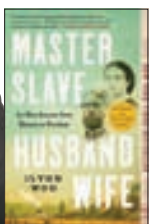
“한국의 많은 작가가 이번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한국에서 받은 모든 사랑에 너무나 감동했다. 저와 같은 예술대를 다녔던 친구 에드 박 작가도 『Same Bed Different Dreams(같은 침대 다른 꿈)』로 풀리처상 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사실 예술대 출신 한인 작가가 많이 나오는데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제스처 라이프』의 이창래도 예술대 출신이다.”

“한국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한국에서는, 특히 영화나 문학 분야에서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굉장히 고무적이다. 제 조국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노벨문학상, 풀리처상을 받을 만한 한국 작가들이 있다.

“물론이다.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지면이 필요하겠지만, 이를테면 에드 박은 제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 출신 작가 중 한 명이다.” 위싱턴=김형구 특파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경쟁사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I/O)’를 하루 앞두고 보고 듣고 말하는 새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했다. 영화 ‘그녀(her)’의 사만다, ‘아이언맨’의 자비스 처럼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한 AI다.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3일(현지시간) 온라인 라이브 행사에서 새 AI 모델 ‘GPT-4o’(포오)를 공개했다. GPT-4o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새 모델명의 ‘o’는 모든 것을 뜻하는 ‘오미(Omni)’에서 따왔다.

시연에서 드러난 GPT-4o의 성능은 2013년 개봉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AI) 음성 비서 사만다를 연상케 했다.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이 영화에서 AI 개발

갭갈대고 말 끊고 ‘얼굴 빨개졌다’는 그녀, AI였다

오픈AI, 구글 하루 앞서 GPT-4o 출시
영화 ‘her’처럼 실시간 음성대화 응답에 0.3초, 사람처럼 대답 빨라

의 영감을 얻었다고 말할 적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마치 영화에 나

는 AI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조금은 놀랍다”며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과정에 어색한 지연이 없었다. 시연자가 스마트폰으로 GPT-4o

GPT-4o(포오)의 특징

높은 지능	GPT-4o 티모 수준 텍스트·추론·코딩 능력
빠른 속도	GPT-4o 티모보다 2배 빠른 토큰 생성 속도
저렴한 가격	GPT-4o 티모보다 50% 저렴
비영어권 언어 가능 향상	비영어권 텍스트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

*GPT-4o 티모는 GPT-4o 이전 오픈AI의 최신 시모 모델. 최대 300페이지의 책 한 권을 요약할 수 있음. 자료: 오픈AI

가 적용된 챗봇에 “지금 시연을 하고 있어 긴장했는데 도와줄 수 있나”고 묻자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바로 답했다. 오픈AI가 밝힌 GPT-4o의 응답 시간은 평균 320밀리초(ms·1000분의 1초). 기존 GPT-3.5(2.8초)와 GPT-4(5.4초)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졌고, 인간의 응답 속도와 유사하다.

감정 표현도 풍부했다. 감정을 극대화해 이야기해 달라거나 로봇 목소리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에 즉각 목소리를 바꿨다. “너는 매우 유용하고 놀랍다”고 하자 “오, 그만해! 얼굴이 빨개지네요”라고 답하는 식이다. 기존 음성 인식 AI가 말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답변 도중에 새로운 질문으로 끼어들어도 즉각 대응했다. 새 모델은 영어,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통역 기능도 갖췄다.

오픈AI의 새 AI가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탑재될지도 관심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애플이 다음 달 열리는 연례개발자회의에서 챗GPT를 탑재한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애플이 챗GPT 외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함께 탑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광우 기자



워싱턴 날씨 (°F)

16일(목)	73~59	19일(일)	66~58
17일(금)	74~60	20일(월)	72~58
18일(토)	69~60	21일(화)	77~61

5월 15일(수) 63~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p>유명 델리 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상부입주 건물 1층, 손수익 = 주입문명 없이 1만불</p> <p>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p>	<p>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는 분 5000-8000</p> <p>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헌든</p>
도장	사무실	그로서리
<p>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p> <p>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p>	<p>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p> <p>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산스코너 캘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p>	<p>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p>식당 자리 6,408 SF, 알버나 메릴랜드</p> <p>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외딴아이 메릴랜드</p> <p>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p> <p>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p> <p>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p> <p>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p>	<p>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회사 회사 찾습니다</p>	<p>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손수익 52만불, 8백만불</p> <p>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p>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폭파 제거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 정상화하나

지난 3월 무너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의 잔해가 13일 폭파·제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붕괴한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남은 구간을 해체하기 위해 이날 작업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렸고, 남아있던 부분이 굉음과 함께 몇초만에 물속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주황색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은 가운데 교각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를 짓누르고 있던 골조들은 산산조각이 난 채 강으로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켰다.

폭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달리호 승무원 21명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선내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6일 이후 선내에 머물며 선박 정비와 당국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AP는 전했다.



철거되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인 달리호는 3월 26일 새벽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다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교량 대부분이 무너지고 다리 위에서 포트를 보수 작업을 하던 건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은 운영이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다. 당국은 이날 폭파된 교량 골조를 크레인으로 인양해 제거하는 한편 달리호를 예인해 볼티모어항

진출입을 위한 통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임시로 4개 수로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는 볼티모어항이 정상 운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한편 지난달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달리호가 교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다리 잔해 제거와 재건에는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번개 맞아 주택 화재

MD 몽고메리 카운티, 100만불 피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주택이 낙뢰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12일(일) 오전 폴스빌의 웨스터리 에비뉴 선상의 한 주택이 낙뢰를 맞았다. 화재 당시 주택에는 최소 4명 이상의 가족이 있었으며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에서는 낙뢰 자체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낙뢰가 배전반을 통해 들어

와 전기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낙뢰가 배전반에 충격을 가하고 이상고압 현상을 일으켜 이 주택의 세탁실을 발화시킨 후 불이 전체 주택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국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10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출동한 소방관은 모두 65명이었다. 김윤미 기자

“대선결과 관계 없이 한미동맹 강화”

조현동(사진) 주미대사는 14일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메치’로 치러질 대선 결과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달 재외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민중·공화 양당의 전당대회(7~8월)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대사관 직원 모두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또 “한미동맹은 우리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첨단동맹으

로 진화했다”며 “대미 수출과 한미 상호 투자 규모는 물론이고 미국의 국내 입법에 따라 제기되어온 기존 우려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미 양자외교 일정에 대해 조 대사는 “7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워싱턴)와 함께, 다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지난달 12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21주년 58차 성경통독집회

미주성경통독선교회 안나산 기도원에서



김양일 목사

강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양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집회 등록비는 200달러(3박4일 숙박비), 개역성경을 지참해야하며 집회 참여자들에게 성경통독 수료증과 김양일 목사 설교 11집을 증정한다.

문의: 703-597-7611 (김양일 목사) 장소: 7910 Peter Rd, Frederick, MD (안나산 기도원:301-874-2984)

미주성경통독선교회 주관, 창립 21주년 58차 성경통독집회가 오는 20일(월) 오전10시부터 23일(목) 오후6시까지 메릴랜드 프레드릭 소재 안나산 기도원에서 열린다.

올해 집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3)’의 말씀을 주제로 3박4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완독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성경핵심 관통 세미나 및 성경암송

워싱턴DC 1년새 방문객 26% 증가

방문객 급감한 도시도 많아

워싱턴DC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근 1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최근 1년새 워싱턴DC 방문자는 26.3% 증가했다. 이 대학은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등의 자료를 통해 펜데

믹 이후 도심지역 방문자 통계를 작성했다. 그 결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최근 1년 동안 45.3%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35.5%), 3위는 캔터키주 루이빌(32.5%), 4위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30.5%), 5위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28.3%), 6위는 캘리

포니아 세너제이(28.2%), 7위는 매사추세츠 보스턴(27.3%), 8위는 워싱턴DC, 9위는 캘리포니아주 LA(24.5%), 10위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21.4%)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샌안토니오, 포츠 워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라스 베이거스, 템파, 뉴올리언즈, 달라스, 오클라호마 시티, 위치타 등은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스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K-콘텐츠 인기로 라면 수출액이 '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포토]

미국, K푸드 최대 수입국 부상

일본과 중국 모두 제쳐 농식품 수출 16% 증가

미국이 올해 일본과 중국을 단숨에 따돌리고 K푸드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주요 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 금액은 올해 1~4월 4억7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4억5200만 달러, 중국은 4억4000만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로 밀렸다. 이 기간 국가별 농식품 수출 금액은 미국이 작년 동기보다 15.9% 증가했으나 일본은 5.7%, 중국은 1.8%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4월에는 일본이 4억8000만 달러로 1위였고 중국(4억4800만 달러), 미국(4억1300만 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 금액 순위를 보면 미국이 1년 새 두 계단을 뛰어올라 1위에 오른 것이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한국 농식품 수출 금액은 일본, 중국, 미국 순이었으나 미국이 2월부터 1위로 올라서더니 4월까지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미국이 1억2700만 달러로 중국(1억2600만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고 일본(1억2300만 달러)은 3위로 내려갔다.

미국은 2022년만 해도 1위 일본과 격차가 3억3000만 달러가량 났다. 그러다 지난해 미국 수출 금액은 8.7% 증가했으나 일본은 6.6% 감소하면서 두 나라 격차는 2억 달러 넘게 줄었다.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록법 따라 정부에 접수 911신고 등 음성녹취도 포함 6년전 타운 셀터 부당할 알림 정찬용 변호사 협력 “소송도”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양용씨 사건(본지 5월 3일자 A-1면)과 관련, 본지는 지난 10일 LA시와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공공기록 정보 공개(Request for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를 청구했다. LAPD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언론의 권리 행사다.

이날 정찬용 변호사와 협력해 청구한 자료는 ▶사건 발생 시간(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모든 바디캠 혹은 차량 내부 디

지털카메라의 비디오 영상 및 오디오 녹취록 ▶오전 11시쯤 사건 발생 장소에서 접수된 911 신고 전화의 모든 오디오 녹취록 등이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LA시는 공공기록 요청에 10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14일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사유와 예상 결정일을 요청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 변호사는 “만약 20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 공개 요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혹은 수사물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거부할 경우 공개를 강제하는 ‘직무집행 명령 가처분(Writ of Mandate)’을 제출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경찰이 왜 총을 쏘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바디캠 및 통신 기록 공개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더 많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언급한 바디캠 공개 시한인 45일보다 앞당기기 위해 일단 2가지 기록부터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개인정보 같은 부분은 공개에 제한이 있다”며 “하지만 911 신고나 응답과 정은 공공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 속 집안 내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공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록 공개 요청은 실제로 시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LA한인타운내 홀리스 임시 셀터 조성 논란 당시 에릭 가세티 시장, 허브 웨스 시의장 등을 상대로 공공 기록을 요구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통해 셀터 후보지를 한인사회 의견 청취 절차 없이 단 하루 만에 성급히 결정한 탁상행정임을 밝혀내 한인들의 반발 여론을 모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정 변호사는 같은 해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옥일기’ 문양 벽화 논란에 관해서도 LAUSD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패소할 시 비용도 물어줘야 하니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무허가 내몰린 한인 노숙자 쉼터

주간 50 중앙일보·USC 공동 기획 힐링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사각지대 놓인 한인 노숙자 ①

팬데믹 이후 한인 홀리스 급증 불체자·영어못해 도움못받아 쉼터는 정부 규제로 숨어 운영 LA시 “대책 마련 최선” 원론만

한인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기관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의 단체들은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지원도 못 받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본지가 확인한 한인 홀리스는 LA한인타운 텐트촌 2곳 등에 약 15명, 김요한 신부의 나눔의 집 쉼터 20명, 무디 고 목사의 아버지밥상

교회 쉼터 및 빅터빌 치유센터 약 20명 등 최소 55명 이상이다.

8년 전 LA한인타운에 하나둘씩 생긴 홀리스 텐트촌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다. 당시 LA한인타운에서는 33곳, 59개 홀리스 텐트 또는 천막이 집계됐지만 한인 홀리스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 LA한인타운 두 곳 이상에 한인 홀리스 밀집 텐트/천막촌이 자리를 잡았다. 한인 마트와 교회, 상가 앞에 텐트 없이 이불이나 짐을 든 한인 홀리스도 종종 눈에 띈다.

본지와 만난 한인 홀리스 대부분은 모텔이나 호텔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LA시 홀리스 정책(인사이드 세이프 LA)도 모르고 있었다. 체류 신분이나 영어가 불편해서다. LA시가 지난해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를 홀리스 대책에 쏟아졌지만, 현실 속 한인 홀리스



박준씨는 LA한인타운 올림픽 볼러바드 선상에 있는 한 텐트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다. 김성진 기자

는 ‘관심 밖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이들을 돕기 위해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쉼터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다. 홀리스 수용에 필요한 라이선스(Board and Care)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민원이 접수돼 LA시 소방국(LAFD)이나 발달안전국(DBS) 등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 쉼터 운영 취소 명

령이 내려져 한인 홀리스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 2014년 2월 LA시 검찰은 ‘아가 페 홈 미션’ 당시 운영자 이강원 목사를 무면허 및 기본권 침해 혐의로 민사 기소했다. 이 목사는 해당 시설 운영권을 박탈당했고, 현재 LA한인타운 텐트에서 본인도 홀리스로 살고 있다.

한인 홀리스 시설들은 정식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인 홀리스들을 외면할 수 없어 한인들의 기부와 소수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꾸려가고 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주변에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쉬쉬하며 운영하고 있다.

LA시 당국은 한인 홀리스 쉼터 지원 노력보다는 원칙과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 익명을 원한 LA시 한인 공무원은 “홀리스 쉼터를 운영하는 한인 단체는 대체로 열악하고, 정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전했다. 김형제 기자

무협회장, ‘중국 관세폭탄’에 “한국 기업에 불리한 것은 아냐”

“구조적 흑자 이유로 반덤핑 상계관세 무분별한 남발 안돼”



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 특과원과 의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어떤 정치적 이유와 결합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알루미늄 이런 것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만 한국이 거기에 과편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등에서 세심하게 해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은 간담회에서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한국에 압박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20%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소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황도, 중국의 반도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세계는 대한민국의 소부장의 역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많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같이 참석했다.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300m

영아패션

미락조물 대장급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운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 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북대사관 습격 한인 “북한, 암살 위협”

과거 스페인 주재 북대사관을 습격해 북한 외교관의 탈출을 도우려 한 한인이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안(43·사진)씨는 12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연방수사국(FBI)이 얘기했다. 나는 스페인인으로 송환되면 북한 정부의 암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반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이다.

안씨 등 자유조선 회원 9명은 2019년 2월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에 침입,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두 달 뒤 미국에서 체포된 그는 지난 2022년 LA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으나,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다.



침입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 등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인터뷰에서 북한 대사관 습격 목적도 설명했다.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망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들의 북한 내 가족과 친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 침입과 납치 상황을 꾸며냈다”는 것이 안씨의 주장이다.

자유조선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창의 주도로 대사관을 습격한 안씨 등은 직원들을 결박한 뒤 한 방에 몰아넣었지만, 이후 스페인 경찰이 북한 대사관에 출동하는 바람에 결국 작전에 실패했다고 한다.

다. 안씨는 “스페인 은 자국 내 다른 나라 대사관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고, 미국 정부는 동맹과의 조약과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침입 초기에 대사관 직원 부인 한 명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경찰에 신고한 탓이었다고 안씨는 설명했다. 그는 “스페인 경찰이 대사관 정문 벨을 눌렀을 때 대사관 직원들의 얼굴 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북한)이 알고 있다’며 겁에 질려 속삭였다”고 전했다.

안씨는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작전과 2018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잠적에도 관여했다.

그는 “북한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과 김한솔을 구출하는 데 내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혹스러워했다”며 “그렇다면 북한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FBI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법무부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씨를 대신해 개입하고, 어떠한 범죄인 인도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영 기자

LG전자, “AI 인재를 확보하라”

“수많은 기업이 AI의 기술적 진보에 관해 얘기하지만 오랜 시간 고객을 바라보며 성장해온 LG전자는 AI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고객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본사가 멀리서 내려다보이는 실리콘밸리 쿠파티노의 유명 와이너리인 ‘릿지비어드’.

이곳에 현지에서 있는 한국인 AI 인재 50여명이 집결했다. 실리콘밸리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LA) 등에 있는 빅테크와 스타트업에서 근무 중인 AI 전문가, 현지 유명 대학의 박사 연구자도 포함됐다.

LG전자의 우수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테크 콘퍼런스’에 초청받은 AI 인



LG전자 우수 인재 채용 프로그램 ‘테크 콘퍼런스’ 조주완 대표.

연합뉴스

재들이다. 그동안 LG 그룹 차원에서 이 행사가 열린 적은 있지만, LG전자가 단독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LG전자의 AI 인재풀로 잠재적 채용 대상자다. A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G전자가 채용을 염두에 두고 이들과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뉴욕서 대박’ 한국 스테이크 하우스

“베컴도 매달 방문하는 곳”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뉴욕의 ‘한국식 스테이크’ 식당이 화제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뉴욕에서 초대박났다’는 한국식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과 글이 공유되고 있다.

게시자는 “데이비드 베컴이 한달에 한번 꼭 방문하는 곳”이라며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코리안 바비큐 집인데 미슐랭(미쉐린) 윈스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해당 식당은 한국식 스테이크 하우스로는 처음 미슐랭 윈스타를 받은 곳으로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예약하기가 너무나 힘든 레스토랑인데 다녀왔다”며 “이날 바로 옆 테이블에서 베컴을 만났다. 단골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명 식사와 와인까지 1000달러 정도 나왔는데 아깝지 않을 만큼 서비스와 맛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영상을 통해 아르헨티나 출



데이비드 베컴이 뉴욕의 한 한국식 스테이크 식당을 방문한 모습.

SNS 캡처

신의 인터 마이애미 CF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가 같은 식당 마이애미 지점을 자주 찾는다고도 했다. 영상을 보면 식당에서는 숯불 화로에 두툽한 소고기를 비롯해 버섯, 가래떡 등을 정장을 입은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모습이다. 이외에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 등 한국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사이드 반찬이 함께 제공된다.

그는 식당에 대해 “백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직화구이”라며 “일주일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 뉴욕에서 합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다 모여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자 “소·돼지 대신 닭고기 먹자”

“소고기 수요서 옮겨와”

치킨 업체 주가도 급등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국내 닭고기 제품의 52주간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매판매는 소폭 하락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때 저렴한 닭고기 수요가 커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닭고기 수요 증가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사다.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도니 킹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최근 소비자들은 이전과 비교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한



데, 일부는 소고기 수요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닭고기 수요 증가는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식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닭고기 가공업체 필그림스 프라이드의 최근 분기 패스트푸드 체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필그림스 프라이드의 주가는 지난 10일 기준 1년 새 64% 올랐다.

치킨왕 메뉴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 ‘윙스톱’도 1분기 들어 동일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 급증했다. 윙스톱 주가(10일 기준)는 1년 새 88% 올랐다. 윙스톱의 마이클 스킵윙스 CEO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매출 증가세가) 아직 천장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노믹에 따르면 치킨전문패스트푸드체인 ‘치필레이(Chick-fil-A)’ 역시 지난해 매장당 평균매출이 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사료 가격 하락으로 닭고기 공급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됐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닭사료의 주된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1년 새 20% 이상 하락했고, 대두 역시 1년 전 대비 15%가량 떨어졌다.

이해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중국 굴기 막으려 반도체 ‘편의 전쟁’ 불꽃

미국·유럽 810억불 쏟아부어
EU 2032년 점유율 3배 증대
인도·사우디아라비아·일본도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8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칩스법(CHIPS Act)에 따라 미국 내에 설비 투자를 하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390억 달러의 생산 보조금을 포함해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64억 달러)를 비롯해 인텔(85억 달러), TSMC(66억 달러), 마이크론(61억 달러) 등에 328억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는 것은 물론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만·한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32년 반도체 생산 능력은 2022년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10nm 이하 첨단공정 비중은 2022년 0%에서 28%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과 패트릭 켈리시어(맨 왼쪽)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20일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텔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칩 일부를 보며 얘기 나누고 있다. [로이터]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32년 한국(9%)을 제치고 대만(47%)에 이어 2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편의 전쟁’에 유럽연합(EU)은 ‘유럽 칩스법’으로 가세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현재 약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30억 유로(4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마그네부르크 투자, 대만 반도체 생산 위탁업체 TSMC의 드레스덴 투자를 포함해 독일에 집중됐다.

EU는 인텔에 약 100억 유로(10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보쉬 등 유럽 반도체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TSMC에는 투자금의 절반인 50억 유로(5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규모는 여전히 중국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는 자금 규모는 미국·EU를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SIA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142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국도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도는 지난 2월 인도 최초의 주요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도 올해 안에 반도체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세액 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에만 치중하던 우리 정부도 최소 10조 원(7억31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KDB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펀드를 재원으로 소재·부품·장비, 패키징(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매출을 15조엔(96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4조엔(256억 달러)의 지원 자금을 배정했다. 구마모토의 TSMC 1·2공장과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 라피더스 훗카이도 공장 등에 지금까지 총 2조5670억엔(164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전쟁을 펼치면서 반도체 과잉 생산 우려도 제기된다.

브리프

모델Y 할부 이자 연 0.99%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NAS: TSLA)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할부 금리 인하라는 고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3일 공식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신형 모델 Y 구매자를 대상으로 연 0.99%의 할부 이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할부 금리 혜택은 일주일 전에는 없었다. 당시에는 할부 이자율이 연 6.49%로 제시됐다. 모델 3의 경우 할부 이자율은 여전히 6.49%로 고시됐다. 테슬라의 예시 보증금을 기준으로 구매자들은 월 1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은 해당 거래가 테슬라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했다. 낮은 할부 이자율이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테슬라가 시장 금리보다도 낮은 할부 이자율을 보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 연준 인하해야

무디스에널리틱스의 마크 잔디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미루면 경제의 일부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1일 비즈니스인사이드(BI)에 따르면 잔디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금리는 경제를 감아먹는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질 수도 있다. 나라면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가 침체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잔디코노미스트는 높은 금리가 이미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차임 비용 증가로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용여건이 악화돼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잔디코노미스트는 작년 실리컨밸리은행의 붕괴가 다른 은행에 영향을 준 것을 상기시키며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점이(실리컨밸리은행과 같은 사태의 재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플 매장 1곳 노조, 첫 파업 결의

“워라밸·임금 불만”
100명 압도적 찬성

매릴랜드주의 애플 매장 1곳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아직 파업에 돌입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12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국제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에 따르면 매릴랜드주 토슨 지역에 있는 애플 매장 직원 약 100명은 전날 투표에서 파업 결의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노조 측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지역의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년여간 회사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집단적인 요구를 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의 직원들은 2022년 6월 국내 애플 매장 중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지난해 1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애플 매장 한 곳의 노조가 첫 파업을 결의했다. 국내 한 매장. [로이터]

한편 뉴저지주 쇼트힐스 지역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노조 결성 여부 투표 끝에 노조 결성이 무산됐다.

이 매장에서 노조 조직화를 추진한 미국통신노동자조합(CWA)은 회사 측이 그동안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애플 매장 수십 곳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됐지만, 노조 결성에 성공한 곳은 매릴랜드와 오라호마의 매장 2곳 뿐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지역 기자

웨딩드레스가 단돈 50불...MZ 몰렸다

개성 살린 저가제품 인기
결혼비용 절감 추세 반영

저렴하면서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가 웨딩드레스’가 인기다. 패스트 패션(SPA) 업체들이 결혼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더이상 고가 드레스가 아닌 가성비 있는 드레스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가 몰린 것이다.

12일 CNN방송은 최근 패션업체들이 결혼 비용을 절감하려는 MZ세대 흐름에 맞춰 애버컴비, 포에버 21, 부트 반, 쉬인, 룰루스 등의 SPA 패션업체들이 50달러 미만의 저렴한 웨딩드레스를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웨딩드레스는 평균 1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의류다.

애버컴비는 지난 3월 ‘A&F 웨딩숍’을 출범하고 웨딩드레스 등 신부와 하객들을 위한 제품을 선보였다. 100종이 넘는 제품의 가격은 80~150달러다. 포에버21은 지난 4월 드레스·잠옷 등 결혼 관련 제품군을 9~50달러 가격대



애버컴비에서 지난 3월 출범한 ‘A&F 웨딩숍’ 내 ‘신부’ 카테고리. [홍페이지 캡처]

에 출시했다. 웨딩드레스로 입을 수 있는 흰색 원피스는 20달러 수준이다. 룰루스도 지난 2월 100~270달러 가격대인 웨딩드레스를 선보였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쉬인도 평균 50~100달러, 최대 200달러인 웨딩드레스를 판매한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웨딩드레스의 평균가격은 2000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비하면 SPA 업체들의 드레스 가격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이런 시장 변화의 중심엔 MZ세대가 있다고 패션 분석가는 전했다.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MZ세대, 특히 Z세대들이 경제적 이유로 개성을 살리면서 비용은 더 절감하고자 이런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지혜 기자

대표변호사 임 중 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중범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중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중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중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중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매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매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매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중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중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대신 낸 입막음 돈 받으려 트럼프그룹에 가짜청구서 보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사진)이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비로 된 청구서를 보냈으나 이는 가짜 서류였으며 실제로는 ‘입막음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코언의 진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언은 이날 오전



법정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증언을 이어갔다.

코언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

인 변호사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각종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격수’로 돌아섰다.

코언은 이날 검사의 증인신문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2월에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

피스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 대니얼스에게 건넨 합의금의 변제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금 변제와 관련해 열린 와이셀버그와 상의 하라고 얘기했다고 코언은 진술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와이셀버그는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내는 등 트럼프그룹의 재무사정을 꿰고 있던 인물이다.

코언은 트럼프그룹에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12개월간 매달 3만5천 달러씩, 총 42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했다. 청구액에는 변제금 외 코언이 내야 할 세금과 상여금 등이 고려됐다.

코언은 해당 청구서들이 유효한 법률 자문 수수료 청구서가 아니었으며 대니얼스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의 변제 받기 위한 가짜 서류였다고 증언했다.

코언은 2018년 4월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충격에 빠졌는데, 트럼프 당

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연락해 “걱정하지 말라.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을 비롯해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 주지사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전날에는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법정을 찾기도 했다.

버검 주지사와 라마스, 밴스 의원 등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법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트럼프(전) 대통령에 맞서 무기화했다”며 “사법 시스템은 한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대통령(조 바이든 대통령)은 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우크라 방문...젤렌스키, 패트리엇 지원 요청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은 토니 블링컨(우) 미국 국무장관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예고없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방어를 위해 대공 방어망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영 우크린포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패키지가 우리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해야만 한다면서 “하르키우에만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포대가 최소 2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일부 지원은 이미 도착했으며 조만간 더 많

은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전장에서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키우는 최근 며칠 새 러시아의 집중 공격으로 전황이 위태로워졌다.

러시아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국경을 넘어 지상 작전을 집중하면서 마을 약 10곳이 넘어갔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1일 호르티차 작전전략그룹 예하 하르키우 전술그룹 지휘관을 마하일로 드라파티 준장으로 교체하고 예비군 등 지원병력을 보강하며 대응하고 있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첫 공식 초상화 공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지난해 5월 대관식 이후 첫 공식 초상화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영국 화가 조너선 여우가 그린 이 초상화는 전반적으로 붉은 색조로, 찰스 3세는 웨일스 근위대 제복 차림으로 검을 들고 있으며 어깨 위로 는 제왕나비가 그려져 있다.

캔버스에 그린 유화이며 가로 약 2m, 세로 약 2.6m 크기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이던 2021년 6월부터 대관식 이후인 2023년 11월까지 네 차례 이 초상화의 모델로 섰다.

여우는 “왕실 초상화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21세기 군주의 깊은 인간미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찰스 3세의 아버지인 고 필립 공과 찰스 3세의 부인인 커밀라 왕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 등의 초상화를 그린 바 있다.

이 초상화는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런던의 필립 몰드 미술관에서, 오는 8월 말부터는 런던 금융지구인 시티오브런던의 드레이퍼스 홀에서 전시된다.

20대 청년 해친 이탈리아 살인곰, 사살 대신 독일 보호구역으로

이탈리아에서 사살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낳았던 살인 곰이 독일의 곰 보호구역으로 옮겨진다고 안사(ANSA)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 아디제주의 트렌토시 당국은 이날 코드명 ‘JJ4’로 불리는 곰이 독일 중부 튀링겐주 소재 보르비스 대안 곰 공원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토 파올로니 관광·사냥 담당 시의원은 “JJ4가 가까워지는 이송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4는 지난해 4월 트렌토시 인근 숲

에서 조깅하던 26세 남성 안드레아 파피를 공격해 목숨을 앗아간 18살짜리 곰이었다. 트렌토시 당국은 과일을 미끼로 유인해 생포했다. 새끼 세 마리 중 두 마리로 함께 길러졌다.

주 당국은 이 곰을 사살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파피의 어머니는 “곰의 잘못도 아니고 아들의 잘못도 아니다. 곰을 사살한다고 해서 아들을 돌려받을 순 없다”며 사살에 반대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jj4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구



명운동’이 확산하는 등 사살 여부를 두고 이탈리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이 곰은 2020년 6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공격해 다치게 한 전과가 있다. 당시에도 주 당국이 사살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막아섰다.

동물 보호 단체인 라브(LAV)는 JJ4와 새끼 곰들이 장기간 철창에 갇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는 자비를 써서라도 JJ4와 새끼 곰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며 트렌토시 당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안사 통신에 따르면 JJ4는 2005년 독일에서 사살된 ‘브루노(JJ1)’와 2008년 스위스 당국에 의해 사살된 ‘JJ3’ 등 지나친 공격성으로 안락사된 두 마리 곰의 동생이다.

이탈리아는 과거 서식지였던 북부 산악 지대에서 무분별한 사냥으로 곰이 멸종되자 1999년부터 이웃 슬로베니아에서 불곰을 들여와 산악 지대에 풀어놓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곰과 사람의 공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초박빙 속 국제분쟁·형사재판이 핵심 변수

(트럼프)

2024년 대선 5대 중점 사안

전쟁 확대는 바이든에 부담
재판결과 영향 아직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상 초유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로서의 입지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크고 작은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어서 현재까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차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것은 없다.

하지만 본 선거까지는 6개월이 남았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상황이 발생하기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위기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형사재판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주 남은 기간 대선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5가지 중점 사안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초 더힐은 대선의 5가지 쟁점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번 분석은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한 내용이다.

▶바이든-트럼프의 나이

캠페인 초기부터 두 후보의 고령을 이유로 유권자들의 새로운 후보를 뽑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양당 후보가 사실상 굳어져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소리는 잠잠해졌다. 더욱이 11월 이전에 양당 후보 모두 또는 한 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는 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미국민의 우려가 커져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 왔다. 두 후보 모두 심각한 건강상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전의 젊은 대통령들에게도 급격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두 사람에게 중대한 의료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럴 경우 11월 대선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국제적 분쟁의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인 전쟁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미군이 두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원조 패키지가 통과되기 수개월 전부터 연방의



2024년 대통령 선거 '리턴매치'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

“ 제3 후보 지지율 올라가면 두 후보 득실 엇갈릴 수도 고령화 논란 잠잠해졌지만 문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

회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승인하도록 요구해 왔다.

바이든은 2020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동맹국과 중동국가 사이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킨 중동전쟁으로 매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시위대는 친팔레스타인을 표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여 바이든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 파견 등의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하거나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는 등 분쟁이 확산하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같이 상황이 악화할 경우 분쟁에 대한 미국민의 시각에 따라 바이든의 선거운동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역풍을 몰고올 수도 있다.

▶케네디 등 제3 후보 선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제3당 후보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과 공화 양당은 지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올해 출마하는 제3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에 대처하기 위한 팀을 조직했다. 최근 트럼프는 케네디 후보에 관련해 '민주당의 식물, 진정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부르며 폄하했지만 이는 트럼프의 케네디에 대해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케네디가 종종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가을 대통령 후보 토론 무대에 서려면 지지율을 더 높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3명이 참여하는 대선 토론이 열리게 된다. 이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구도와는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

케네디 외에도 코넬 웨스트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고, 질 스타인이 녹색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현재 여론조사에서 1~2%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가 부상하면 선거의 판도는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제3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지금껏 낮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중 어느 편을 표를 잡느냐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기 침체

경제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선거 이슈였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이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4%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이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해 올 초 물가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2%가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 행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표시해 왔다. 즉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런 입장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나 불황이 발생하면 바이든은 국민에게 그의 경

제정책을 실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유·무죄 판결

빠르면 수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 영화배우 스톱티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 돈' 혐의에 대한 트럼프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6~7월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이번 재판은 4건 중 선거일 전에 결과가 나오는 유일한 재판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승리는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재판이 시작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 반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 영향은 불분명하다.

유죄 판결이 트럼프에게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엇갈리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입막음 돈' 혐의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트럼프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지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압도적으로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지지율에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변수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올해 대선은 바람 한 점도 거목을 쓰러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김원선 에디터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바이든, 트럼프보다 세계 때렸다... 대중국 '관세 전쟁' 시작

**미국, 중국산 제품에 슈퍼 관세
전기차 25→100%, 배터리 7.5→25%
첨단제품·의료용품·크레인 등 대상
"중, 기술 도둑질" 관세인상 배경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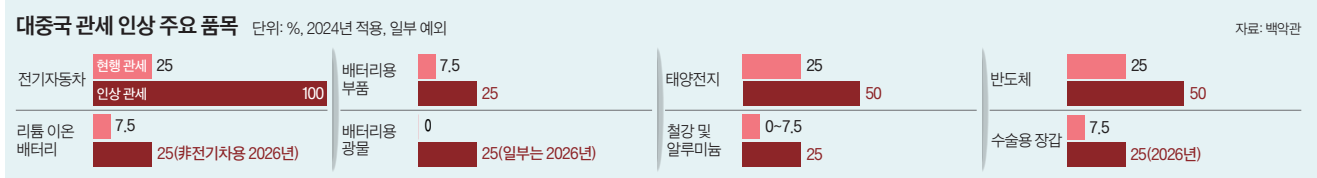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높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국 관세 인상 방안을 밝혔다.

고관세 적용 대상엔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품목은 물론 의료용품과 크레인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포함됐다.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강도 높은 대중국 관세 압박 정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 절취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전 세계 핵심 물품의 70~80%, 심지어 90%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문화유산의 달' 환영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오른쪽 사진은 지난 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 국제공항에서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배웅하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AP·로이터=연합뉴스]



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180억 달러(약 24조7000억원)의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분야는 전기차로,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당장 기존 25%였던 관

세가 100%로 4배 오른다. 백악관은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 등 비시장적 관행이 정상적·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로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LAT와 BYD가 나란히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 생

산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외엔 한국 기업 3곳과 일본 기업 1곳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완성품은 물론 배터리 부품의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리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흑연 등 배터리 재료 광물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이 시장의 80~90% 가까이 점유한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다.

백악관은 또 현행 0~7.5%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올해 25%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중국산 반도체의 관세율도 현행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주사기와 바늘을 비롯한 의료용품과 마스크, 수술용 장갑 등에 대한 관세도 25~50%까지 인상된다. 미국 정부가 해킹과 정보 유출을 위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지목했던 중국산 크레인도 기존 무관세 품목에서 25% 고관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워싱턴·베이징=강태화·신경진 특파원

한국 위상, 동아시아 넘어 글로벌로 확대되

▶ 1면 '신흥 강대국'에서 이어집니다.

미국의 전략통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경제·기술적 기회를 제공할 뜻을 보였다. 동아시아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며, 글로벌 중심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를 역동적으로 활용할 때에 이르렀다.

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워싱턴과 인연을 맺었다. 그 미국의 수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한국의 위상 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후진국으로 추락할 뻔했던 한국이 어느새 '열강(列強)'이 되어버렸다. 한국은 제국주의를 하지 않고도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최초의 나라다. 인구 5000만명과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전 세계 단 7개국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글로벌 파워(Global Fire Power)라는 군사력 지표에서는 올해 5위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은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3대 산업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방위산업 뿐만 아니라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도 막강해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을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전통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빠르게 증대된 국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 전략적 비전이 없고 의지도 부족하다. 한편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내외 난제와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심각한 정치·이념 갈등, 경제성장률 저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중 대립으로 인한 경제·안보적 위기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사적 갈림길에 섰다. 강대국 반열에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한 발 더 도약할 것인가.

하버드대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학자들과 워싱턴 싱크탱크 정책통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문제였다. 전과 달리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입장을 금급해한다. 한국의 해법은 세계인들이 참고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자연총 교수의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취

할 입장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글로벌 차원의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경쟁의 지구적인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세계질서의 재편과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다수는 더 이상 세계질서의 '평화적 변경', 즉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를 수용한 세계질서의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평화적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전략적 오판이라고 본다.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이 체코를 독일에 넘겨준 1938년 뮌헨협정을 낳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 참담한 실패의 기억이 현재 미국 외교가에 도사리고 있다. 대중(對中) 온건파의 시각은 점점 더 비현실적 유희주의자의 견해로 치부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강경한 대중 압박에 맞서면서, 강 대 강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심화된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세계질서를 흔들어 놓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세계질서에 큰 파문을 일으킬 다

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회복력에 의한 제약(constraint by resilience)'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항상적 위험과 연쇄적 피해의 가능성을 직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잠재적 도발자(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강압적 힘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다.

한국과 연계된 공급망·해운·군사동맹·정보통신 등 여러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도발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도발자의 강압 사용 역량을 제약할 수 있다. 가령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인한 중국의 강압적 경제 조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미 양국과 우호국들은 공동의 공급망 탄력성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적에 의한 인도-태평양의 해양수송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은 해양교통로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안보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해운 네트워크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회복력에 의한 제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양자 협의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자회의(예컨대 한·중·일 3국 회의, 아세안+3)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등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할 때는 1대1 양자 협상과 더불어 아세안과의 협력, 미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배후에 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공동 이익을 추구'할 때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를 준수한다면 한국은 중국과도 공동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외교 전략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선 우방국 입법부 간 협력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적 정책대응에는 '야당'의 역할이 불가결하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사회발전의 역동성이다.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역할의 순환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의원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주요 안보·경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초당적 협력이 긴요하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www.koreanbellgarden.com



평화와 화합의 종은 높이 2.18m, 직경 1.26m, 중량 3ton으로 버지니아의 상징물과 한국 전통 문양의 독창적으로 새겨진 세계 유일의 한국종으로, 한국 최고 조각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이신 원광식 선생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종은 그 소리가 은은하고 이롭다워, 예로부터 인간에게 정기를 불어 넣어 주고 듣는 사람에게 행운과 번영, 우정, 자유, 평화를 전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2주년 코리안벨 가든 (일명: 평화와 화합의 종각) 완공기념 및 한국문화 축제

워싱턴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로 2012년도에 완공 조성된 미국 최초의 한국 정원, "코리안벨가든"이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귀한 마음으로 마련된 코리안벨가든이 올해 1월과 5월호에 가장 권위 있는 "Washington Magazine Guide"에 코리안벨가든은 숨은 보물과 같은 장소 그리고 평화의 종각과 함께 한국 정원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이므로서 새로운 공간으로 떠나는 여행지로 추천되었습니다.

북버지니아 공원에 MOU를 통해 약정한 영구관리기금도 현재 \$200,000중 \$160,300 (as of May 2023) 지불하였습니다. "코리안벨가든"이 더욱 더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관리기금 모금을 위하여 화강암 의자를 Limited 2개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우리 워싱턴의 자랑이요, 마음의 고향이며 쉼터인 귀한 장소에 자자손손 이민의 선구자로서의 모범을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업은 하느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 주셨음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귀한 행사에 동참하시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년 멤버십(Annual Membership) \$200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일시 2024년 5월 18일(토) 오전 11시 (우천시: Visitor Center/방문 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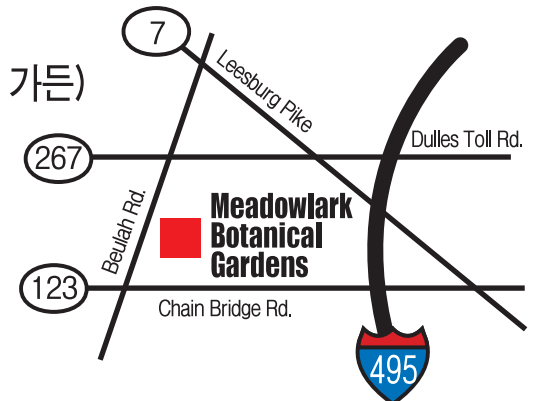
장소 Meadowlark Botanical Gardens (메도우락 식물공원-코리안 벨 가든)
9750 Meadowlark Gardens Court, Vienna, VA 22182

문의 703-424-1111(김옥순 사무총장), 703-346-1925(윤희균 행사준비 고문)
703-593-5447 *자원 봉사하실분은 연락주세요.

※ 미납하신 건립위원회에서는 약정기부금을 성의껏 납부해 주시면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다.

** 행사날 코리안 벨 가든 영구관리기금을 위하여 "노트카드(\$5)"를 판매합니다. 항상 메도우락식물공원의 Gift Shop 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구입하시는 만큼 북버지니아공원에서 관리하는 코리안 벨 가든 영구관리기금으로 기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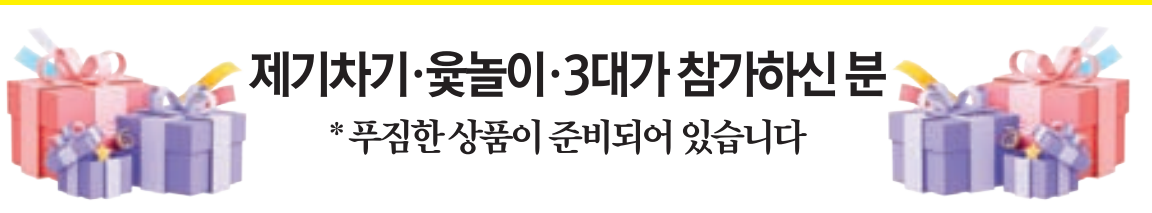
**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은 : Pay to the "KACC" / 주소: P.O. Box 198, Annandale, VA 22003



주요행사

* 행사당일은 무료 입장입니다. 피크닉 의자, 소풍 돛자리 가지고 오셔도 됨.

- ◆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 (단장 김영란외 15명)
- ◆ 한국 민속 공연 워싱턴 한국 무용단 / 하성한국학교 (교장: 이정렬)
- ◆ 3대가 함께하는 전통놀이 윷놀이 및 제기차기 (한팀 4명) *특별협찬: 미주한인노인봉사회
- ◆ 신사임당상 / 특별공로상
- ◆ 한국 전통 민화 체험 및 종이 학 만들기 (정정순 / 한국전통 민화협회 워싱턴 지부장)
- ◆ 태권도 > 도한진 타이거 아이즈 태권도 > 연락처: 571-274-2565
- ◆ 평화와 화합의 종 타종식
- ◆ 한식체험
- ◆ 왕과 왕비의 행렬 강세원 & 강경옥
- ◆ 한국 전통 혼례복 체험



DONATION FOR KACC

* 세금공제 혜택이 됩니다.

- KOREAN BELL GARDEN (\$10,000+)
- PLATINUM BELL (\$5,000+)
- GOLD BELL (\$2,500+)
- SILVER BELL (\$1,000+)
- BRONZE BELL (\$500+)
- CORP. DONATION (\$1,000+)
- ANNUAL MEMBERSHIP (\$200+ 기부금)

● Pay to order : **KACC**
P.O. BOX 198 Annandale, VA 22003
● 문의전화 : 703-593-5447

※미납중이신 건립회원들은 약정하신 기부금을 납부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별후원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동포청, 경기도, 페어팩스카운티, J 워싱턴 중앙일보 외 각 언론사

단체 및 기업체 후원 성정 바오르 천주교회(김태진 베네딕도 신부), 이상남 박사, 워싱턴가정상담소,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대한민국 미동부재향군인회,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전우회, 워싱턴평통(린다 한 회장), 글로벌이러닝재단, Potomac Woman's Club, 이순신미주교육본부(김대영 이사장), 광복회워싱턴지회(김은 회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한미애국총연합회, 워싱턴 시니어 축구팀, 숙명여자대학교 워싱턴 동문회(최환숙 고문 / 김영란 회장), 한강, 그레이스 옥 미용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신비로운장미(박옥희), 케빈 윤(WKTV 대표), 토니 김, 제이슨 문, 임마누엘미용실, 이승만박사기념연구교육재단(양동자 박사), 강지현회계사, 한미여성재단, 워싱턴여성회(김경숙 회장), 장미훈수방, CNC Printing, 미주가요동호회(이재성 회장), 한스여행사, 손목자 이사장, 윤희균 고문, 박장호 & 박헬렌, 신현기, 한문성 & 한경옥, Tony Kim(American Auto Imports)

주최 : 한미문화재단 / 워싱턴지역한국학교협의회
워싱턴버지니아한인통합노인회 (회장 우태창)
미주한인노인봉사회
워싱턴심포니오케스트라 (이경신)

주관 : 한미문화재단 북버지니아공원국 (NOVA)
특별 건립 고문위원 : 안창호 박사, 이덕선 회장, 김갑년 회장, 정규섭 (전)대사, 전영남 회장, 박윤수 박사, 이내원 회장, 이복신 회장, 윤희균 회장, 우태창 회장, 송제경 회장, 박해찬 변호사

한미문화재단 (Korean American Cultural Committee) 대표 이정화

이원석, 장관에 검찰인사 연기 요청... 법무부, 이틀후 강행

(박성재)

view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이라고 운을 뚫다가 갑자기 침묵했다. 14일 오전 9시5분 대검찰청 현관 앞에 취재진 20여 명이 “어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 인사가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던진 후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확히 7초간 침묵 후 그는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이었다. 묵비였지만 묵비가 아니었다. 현장 기자들 대부분이 ‘묵언의 향의’로 받아들였다.

권력과 검찰의 갈등은 역대 정부마다 반복된 일이다. 하지만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집권 2년 만의 검찰과의 갈등은 너무 이르다. 그것도 대통령 배우자 수사란 예민한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원석 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 지휘자인 송 지검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형사1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반부패수사2부) 수사 실무를 각각 총괄하던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마저 내보낸 건 “수사 방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까지 검찰에서 나왔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한 한 검사장은 “이런 식의 비상식적 인사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란 메시지의 폭력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이는 곧바로 후배 검사들을 향한 당부이자 용산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그는 총장직 조기 사퇴설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으로서는 제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이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 김주현 민정수석의 임명(7일)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라고 한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장의 인사안을 짚는 소식이 대검에 전해졌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옷을 벗어야 할 검사장 이상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 통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다. 검사장 인사는 곧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송 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의미했다. “이 총장의 대검 참모(검사장)들을 전부 날려야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말도 4·10 총선 전부터 용산 주변을 맴돌던 상황이었다. 이 총장은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법무부의 인사안을 봤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지금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안 된다”고 반대했고, 박 장관도 “알겠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대검 고위 관계자). 하지만 큰 폭으로 단행된 인사는 그 내용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12·3·4차장검사 모두가 교체되는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이 총장의 대검 참모도 외부 개방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7명 중 6명을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냈다.

검사장 이상 38명 중 37명을 이동하는데 인사 대상자 상당수가 중앙일보에 “13일 인사가 날 줄 예상하지 못했다” “인사 발표 5분 전에야 법무부 메일을 받아 내가 인사 대상인 줄 알았다” “이 인사를 쓸 시간도 주지 않고 군사작전 처럼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이 총장과 의 사전 협의를 놓고도 법무부와 대검은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했다”(법무부 관계자)와 “조율이 제대로 안 됐거나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했다”(대검 관계자)로 입장이 갈렸다.

대통령의 가족, 배우자 수사 도중에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검찰 총장 참모진까지 대거 물갈이하자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 수사 중 장수를 교체한 건 한 번도 없던 일”(전직 검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조율됐다” 질문에 즉답 안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강조 “대통령 가족 수사 중 장수 교체 안해 전직 총장이 지휘부 교체 비판도

찰총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3남 김홍걸 전 의원에 이어 2남인 김홍업 전 의원까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에서 수사팀 교체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청와대 고위직의 교체 건의가 있었지만 자식의 구속 앞에서 DJ는 포기했다”고 전했다.

추미에 전 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대거 지방으로 발령낸 인사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원석 총장 역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다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과 함께 좌천됐다. 윤 총장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사 대상에 포함된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인사에 누구보다 분노했던 윤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손아귀에 쥐려 한다는 점에서 더 분노스럽다”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추미에보다 더하다”고 했다. “거지 같은 인사”란 말까지 나왔다. 또 다른

인사 대상자는 “이런 인사를 짚 건 이 총장에게 일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은 “앞으로 인사에선 ‘찐찐’ ‘찐찐’ 검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자조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관해 이날 이 총장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한 데 대해 “총장이 인사에서 패싱당했음을 시사하는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 수사팀 구성이란 분석도 나온다. 모든 부담은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쏠리게 됐다. 이 지검장으로선 용산뿐 아니라 반포대로 건너편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는 직속상관인 이 총장의 지지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이원석 총장을 만난 한 인사는 “검사 인사 후 이 총장의 표정이 더 결연해진 것 같다”며 “이 총장은 검찰이 위기라고 느낄수록 신속·엄정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영·허정원·양수민 기자

야 “김 여사 수사 틀어막기 인사” 여 “검사장 바꾼다고 수사 안 막혀”

민주당, 검찰인사 논란 발판 삼아 특검법·검수완박 추진 가속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 수사라인을 물갈이한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더 세계 틀어막고 김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추미애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사실상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것”이라며 “새 인사는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수틀막’ 인사”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선 “야당 탄압 선봉에 선 친윤 라인”이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 논란을 발판 삼아 각종 특검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 중에 특검을 도입했다”

며 “국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운영 위·법사위에서 검찰 인사 논란부터 하나하나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 인사 보니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탄

핵)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썼다.

그러나 성일중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라디오에서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겠느냐. 프로그램 대로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철규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검사장이 바뀐다고 수사가 중단되겠느냐. 불가능한 구조”라고 맞섰다. 김정재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er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국가 서열 2위 국회의장, 당대표가 정하는 게 맞나”

(우상호)

우상호 “심각한 문제” 공개비판 ‘명심=추미애’ 돌며 당내 반발 커져 추 “당심은 명심, 명심이 민심”

다선 중진들이 앞다퉀 “내가 적임자”라고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분위기가 돌변한 건 순식간이었다. 4파전 구도였던 경선 초반만 해도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왜 국회의장감인지를 역설했다. “내가 환노위원장 때 당리당락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노조법 문제를 해결했다”(추미애 당선인), “제가 국회의장 단상에 뛰어올랐을 정도로 내면은 불같은 성격”(조정식 의원)이라는 어필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기류가 확 바뀌었다. 정성호 의원은 돌연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짙막한 입장을 냈다. 조정식 의원은 추 당선인과 회동한 뒤 물러났다. 이어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충심을 헤아려 달라”고 신고하듯 인증글도 올렸다.

당내에선 “호랑이라던 후보들이 갑자기 얌전한 고양이 됐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경선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개혁·혁신을 얘기하던 후보들이 갑자기 선수·나이·관례를 말하니까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의 ‘교통정리’에 이 대표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친명을 넘어 ‘진명’(진짜 친명)으로 불리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정식(5일), 정성호(6일) 의원을 차례로 찾아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김용민(8일), 김민석(12일) 의원 등 다른 친명계도 경쟁하듯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명심(明心)은 추미애”라는 말이 돌았던 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추 당선인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선이 과열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조정식·정성호 후보 이름에 ‘사퇴’ 표시가 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되다 보니 우려가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 대표가 다른 후보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라디오에서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는 말도 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장 경선이 아니라,

‘친명 오디션’ 같다(아권 관계자)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4·10 총선에 불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후보들이 어떤 권유를 받고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대

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참담하다”며 “원래 추 당선인을 뽑을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는 중에도 친명계에선 “추 당선인에게 의외의 의외로, 이 대표 대신 싸워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 군역을 대신 쳐주는 ‘대립군(代立軍)’ 같은 역할이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의 전 서열 2위이자 3부(입법·사법·행정) 요인이다. 진영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로 당적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명심’과 추대론만 난무하는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판에서는 중립에 대한 고민도, 국회 의사당의 무게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찾아볼 수 없는 듯하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결정지을 민주당 당선자 총회는 16일 열린다.

정용환 기자

대통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운동”

49일 만에 현장 민생토론회 개최 “노동약자법 제정해 국가가 보호” 야당이 공약한 노동법원도 추진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의지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만드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의료개혁을 비롯한 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추진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으로) 이로운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이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뺏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유희를 따지지 않고 책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심심찮게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상황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49일 만에 재개된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이슈, 특히 노동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장 이중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처우가 천지 차이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가입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 체계를 두고는 “더는 방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제정안을 소개했다. 여론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 내용을 구체화한 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고객 상습입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입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윈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엔 “임기 중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법원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야권의 숙원사업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다면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건설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고충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p>리쓰버그 싱글홈</p>  <p>PENDING</p> <p>\$1,110,000</p> <p>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된 집</p>	<p>레스틴 콘도</p>  <p>PENDING</p> <p>\$426,000</p> <p>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p>	<p>로턴 타운홈</p>  <p>\$580,000</p> <p>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p>	<p>클립턴 싱글홈</p>  <p>\$840,000</p> <p>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p>
--	--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

85세

\$406,309

25년후

3% 복리인상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용산 “네이버, 일본에 떠밀려 라인지분 팔지는 않을 것”



14일 경기도 성남시 라인플러스 본사로 한 직원 이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1]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조치 안 돼” 야권의 저자세 외교 공세 의식한 듯 일본, 지분 계속 거론 땀 갈등 ‘불씨’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버가 경영 판단에 따라서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적어도 이번 행정 조치가 압박으로 작용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의사에 반해 서둘러 파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향후 라인야후와 관련해 지분 문제를 계속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일본 정부에)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차례 행정지도에

도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정보 보안 강

화 대책은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우려에 대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대응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연일 라인야후를 놓고 입장 표명에 나선 건 야권에서 저자세 대일 외교 공세가 이어지는 논란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태인 기자**

의협 “불법있나 제보하라”... ‘3000명 제한’ 병원단체 좌표 찍고 공격

(의대 증원)

‘의대 3000명 증원’ 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일부 의사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협의회 임원 7명의 명단이 올라왔고 이들에 대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진(경기도 용인 강남병원장) 협의회장을 향해서는 “저런 게 선배 의사냐” “신규 의사들은 단결해 절대 취업하지 말자” “대한민국 의료를 박살 낸 주범”과 같은 과격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협의회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때문이다. 협의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종합병원의 응급실·수술과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가중

되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에는 중형 병원 40여 곳이 속해 있다. 이런 회신 내용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관련 항

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56건의 자료에 포함됐고,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하며 공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회장이 원장인)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의협에 제보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강남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원장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고 쓰기도 했다. 정부의 외국 의사 투입 방침을 반대하던 임 회장이 최근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 사건을 올려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취약계층을 언급한

것이다. 협의회는 “집단 테러를 당하는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한 병원장은 “수익원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현실 때문에 증원 찬성 의견을 냈을 뿐인데, 협박성 연락이 빚발치고 있다”며 “과도한 신상털기와 비방으로 괴롭다”고 했다. 다른 병원 원장도 “필수의료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협의회 입장에서는 (병원)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까지 (의사들이) ‘왜 그런 데서 일하느냐’고까지 말하며 흔들려고 한다. 의료계가 집단되면 상태”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맘카페 “강사 선물 얼마나” 토론, 교사들 “민원이나 없었으면”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A씨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다른 학부모들과 ‘선물 회의’를 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스승의 날 선물로 무엇을 줄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결국 20만원씩 건어서 100만원 상품권과 케이크를 선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스승의 날은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날이다. 학생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올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학생들이 나눠 먹다 건네는 작은 젤리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인 15일을 맞아 교문 안과 밖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는 작은 선물에도 조심스러워 하고, 부모들은 학교 바깥의 스승들을 챙기느라 고민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에 대한 선물은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지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원 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부터 스승의 날 선물을 고민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어느 가격까지 준비하면 좋으냐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지인은 5만원 상품권을 8명에게 돌려 40만원을 썼다”는 식으로 선물

시세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학원에서는 교역의 선물이 오가기도 한다. 대치동의 한 입시 컨설턴트는 “김영란법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홍삼이나 소고기 세트는 꽤 들어온다”고 했다.

반면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는 선생님께서 쓰는 편지지조차 가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똑같은 편지지를 나눠줬다. 강원도의 한 초등 교사는 “바라지도, 받지도 않는 선물 때문에 스승의 날에는 늘 청렴서한 공문이 와서 기를 죽인다”며 “어느 날부터 우리 교사

들에게 스승의 날은 죄인이 되는 날이 됐다”고 토로했다. 스승의 날이 지금과 같은 5월 15일이 된 것은 1965년부터다. 이후 1973년 공무원 부패 척결을 이유로 폐지되는 국적을 겪었다가, 1982년 법정 기념일로 부활했다. 하지만 촛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자 2006년 스승의 날에는 ‘무더기 휴교’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서울 초교 62%, 중·고교 58%가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했다.

많은 교사에게 스승의 날은 불편한 날이 되고 있다. 교사 커뮤니티에는 “선물은 바라지도 않으니 민원이나 없길 바란다”는 글이 다수다. 여기에는 교권 추락도 한몫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 대신 ‘교사 인권의 날’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들은 “최고 선물은 교권 보호”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파주에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어서 내 말 한마디에 고소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교권 보호 대책도 현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교원 만족도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원은 21.4%,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이관하는 등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원·최민지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p>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p>	 <p>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비마트 부근 \$560,000</p>	 <p>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p>	 <p>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p>
--	---	---	---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p>시민권 / 영주권</p> <p>-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p>	<p>비 이민비자</p> <p>-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p>
---	---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락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우리말 바꾸기

주책인가, 주책이 없는 건가?

상대가 이랬다 저랬다 죽대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보통 “그 사람 참 주책없는 사람이네”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사람 정말 주책이야”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럴 때 ‘주책없다’와 ‘주책이다’는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

‘주책’은 한자어 ‘주작(主着)’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책’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죽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해 뭉스실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주책’ 뒤에 ‘없다’를 붙여 ‘주책없다’고 해야 의미가 성립한다.

그래서 ‘주책없다’가 표준어이고 ‘주책이다’는 비표준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많은 이가 “나이깨나 먹은 사람이 왜 이리 주책이야”에서처럼 ‘주책이다’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2017년 ‘주책이다’를 ‘주책없다’와 동일한 뜻으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판단해 표준어로 인정했다. ‘주책이다’뿐 아니라 ‘주책스럽다’ ‘주책맞다’도 마찬가지로 표준어로 인정했다. 따라서 ‘주책없다’고 해야 할지, ‘주책이다’고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써도 된다. ‘우연찮다’와 ‘우연하다’도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이가 ‘우연찮다’를 ‘우연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 변화된 이것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독자칼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안에서 (In God We Trust)



허종욱
사회학박사,
전 볼티모어대 교수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처음 발견하였을 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1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화폐에 미국 시민 전체를 의미하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신앙고백을 넣었을까? 건국 정신의 전통을 우선했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이 최고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졌으며 미국 시민은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토(motto)를 연방정부를 포함해서 노스 캐롤라이나주 등 6개주가 온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미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미국 시민이나 누구나 이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신앙고백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신실한 미국 시민들의 신앙 고백인가?

남북전쟁이 한창인 1864년 링컨대통령은 1976년 독립선언 당시 13개 여러 주로부터 한 나

라가 형성됐다는 개념을 상징하기 위해 ‘여럿으로부터 하나’(Out of Many, One)라는 모토를 공표했다. 이 모토는 1956년까지 연방정부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 후 1955년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새로운 모토를 제안, 미국 의회에서 이를 미국연방정부의 정식 모토로 채택, 1956년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미국 모토가 됐으며 모든 화폐에 이 모토 문구를 삽입 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는 법적 근거로 그동안 많은 비기독교 무신론 단체들이 화폐에 새겨진 이 모토를 제거 할 것을 요청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도 미 연방최고법원은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요즘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라인가 하는 반문을 해본다. 그러나 이 모토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많은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시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며 생각하며

절대 늙지 말자



김선주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

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2024년 5월 8일, 바로 이번 주, 또 새로운 책을 내셨다. ‘김형석, 백 년의 지혜 - 105세 철학자가 전하는 세기의 인생론: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오늘 아침 김형석 박사님의 인터뷰를 들었다. “절대 늙지 말자”라고 하신다. ‘생로병사’ 중 태어나기 전은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죽은 다음도 우리 인생은 아니고, 병은 의사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라는 말씀이 많이 공감되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늙지 않는 길은 두 가지다. 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한 우리는 절대 늙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지금도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피곤하고 바빠도 함께 어려운 책을 읽는 나의 다섯 북클럽 회원들이 떠올랐다. 우리의 모토도,

죽을 때까지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는 커뮤니티가 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화내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다. 즉 감정 조절을 잘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몸에 안 좋은 것은 절대 안 하신다고 한다.

뒹굴거리다가, 얼른 바닥 요가 매트에 누워 인터뷰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했다. 그러며 다짐했다. 그래 절대 늙지 말자, 늘 성장해가자, 마음을 편히 가지자.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자.

“읽기 편하다. 마음에 파스한 위로의 차 한 잔이 배달된다. 그리고 계속 읽게 된다. 그리고 마시고 남은 여러 가지 차들의 빈 잔이 나의 마음을 채운다.”

교보서점 웹사이트에서 김 박사님 책을 찾아보다, 잠깐 열어본 내 책의 서평들이 아침 나를 깨운다. 다음 책을 쓰기로 약속한 가을이 다가온다.

105세 교수님도 책을 내셨는데. 메디케어 충격에서 벗어나 빨리 다음 책이나 쓰자! 화이팅, 65세 내 인생!

작년 가을 한국에서 돌아오니 카드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디.케어’.

공립고 32년 근무로 평생 의료보험이 커버되기에 방심하는 사이, 65세 생일 직전 정확히 날아온 이 카드! ‘앗, 엄마가 가지셨던 이 카드가 왜 내게? 순간, 깨달았다. 건강보험비를 안 내 줘도 될 내 65세 생일을 학군과 주 정부가 얼마나 사악하게 기다려왔을지를.

나는 매우 근시안적이어서, 새 밀레니엄인 2000년 이후에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별로 믿어지지 않았었다. 열심히 살면서도, 42세 이후 중년의 인생을 별로 상상하지 않았었다. 50에 남편이 떠났을 때는,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우울증을 극복하려 들어간 대학원 어느 수업 중에 기대수명을 적어보라고 할 때, 다들 80대, 90대라고 했는데 나만 60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난다.

이런 내가 메디케어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보니’라고 말하러니 좀 미안한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 계시다. 존경하는 김형석 박사다. 몇 년 전, ‘백 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내셨다. 내 지난 책에서 박사님께서 2023년 6월 강연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낙하산 영웅’ 된 미화원 아들... 4108회 강하 기록 세웠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김임수(51) 원사를 만난 것은 ‘군이 자랑하는 낙하산 영웅’이기에 앞서 그의 인생 얘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고졸인 그는 월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미화원 등으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는 가운데 자란 데다 체질도 약골이었다. 흡수저의 요건을 죄다 갖춘 그는 그러나 군 생활 31년간 4108회를 강하해 현역 장병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군의 날 시범 강하 25번, 경연대회 45회 입상 기록도 달성했다.

“어렵게 특전사에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장거리를 달리고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훈련했죠. 그런 생활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꼭대기에 있더군요. 거창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할 일 착실히 하면 시간의 문체이지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으며 살았는데, 맞은 것 같습니다.”

체력시험 고전... 읍소해 특전사 입대

-성상사가 궁금합니다.
“1992년 전주 우석고를 졸업한 뒤 해양학도를 꿈꾸며 대입 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낮아 포기해야 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로 국가공용자인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인데 고평계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3남 1녀(김 원사는 차남)를 부양하셨어요. 마지막 일자리가 환경미화원이었죠. 집이 어려우니 재수는 안감생심이었고, ‘군대 먼저 다녀오자’고 마음먹었죠. 마침 특전사 나온 동네 형이 ‘남자라면 가볼 만한 곳’이라고 권해요.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전사는 북한에 침투해 작전하는, 무시무시한 부대로 소문났어요. 약골이라 체력시험에서 고전해서 모병관한테 ‘꼭 가고 싶다’고 읍소한 끝에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펜글씨를 잘 썼는데 마침 강하 부대인 707 특임대에서 행정 하사를 필요로 해 선발된 끝에 7주간 교육받고 시험을 봤어요. 생명줄 없이 자유 낙하하는 ‘고공 강하’를 3번 안에 통과해야 하는데 두 번 떨어지고 마지막 시도에서 겨우 합격했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1만 피트(3048m) 상공에서 맨몸으로 떨어지면 순간 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합니다. 처음 강하할 땐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거네’라고 생각했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순전히 반복 훈련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지상에서 수천번 연습하고 강하 한 번을 하거든요. 항공기 이탈 12초 뒤에 가속이 떨어져 시속 140km로 유지됩니다. 그때 자세를 안정 시킵니다. 이어 손목에 찬 고도계를 보다가 4000 피트(1219m)에 도달하면 손잡이를 당겨 낙하산을 펴면 ‘확!’ 솟구치죠. 진짜 승부는 고고도 강하입니다.”

손끝 찢어지는 맹추위 속 50km 활공
-고고도 강하라니요?
“은밀한 침투를 위해 지상에서 탐지가 안 되

‘초라한 자신’ 극복하려 맹훈련
각종 경연대회 45번이나 입상
1200m 낙하해 동전 찍는 묘기도
“착실한 하루가 틈에 오른 비결”

는 고도 2만5000피트(7620m)에서 강하하는 거죠. 산소량이 지상의 3분의 1이라 산소마스크가 필수입니다. 기온도 지상보다 섭씨 50도쯤 낮으니 겨울에는 영하 50~60도가 기본이죠. 풍속도 시속 70노트(130km)에 달해요. 장갑을 꺼도 손끝이 찢어질 만큼 춥습니다. 낙하산이 20kg인데 군장 50kg까지 추가되니 몸도 무겁죠. 새벽에 민항기 안 뜨는 시간대에 강하하는데, 2월이 피크입니다. 체공 시간 5~8분 동안 50km를 활공해요. 서해에 강하하면 개성에 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군산 앞바다에서 뛰어 익산에 착지하죠.”

-대단합니다.

“가장 많이 할 때는 1년에 300회씩 했죠. 하루에 10번 한 적도 있어요. 그땐 저도 녹다운됐죠. 고도의 정신력이 요구돼 일반인들은 하루 2번도 힘들어요. 대통령 등 VIP들 앞에서 펼치는 시범 강하만 3000번쯤 했어요. 국제 시험 강하도 많이 했는데, ‘정밀 강하’라고 4000피트에서 낙하해 땅에 놓인 지름 1.5cm 동전을 터치해 점수를 따는 겁니다.”

-세상에... 4000피트에서 낙하해 동전에 접지하는 비결은요?

“표적을 찍으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해요.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크기 훈련을 따라 해요. 아무도 없고 모르는 산길을 홀로 4시간 걸어 목표지점까지 가고, 달리는 말에서 활 쏘는 상황을 연출해 평정심과 배포를 기릅니다.”

거센 바람에 한강에 착지한 적도

-낙하산 안 퍼진 적은 없나요?
“예비 낙하산을 딱 두 번 퍼봤어요. 한 번은 전개량이 잘못돼 낙하산이 안 퍼져 예비 낙하산을 폈고, 두 번째는 낙하 대형 만들다 영커서 예비 낙하산 폈죠. (날이 안 풀어졌을 때 기분은요?)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맨 처음 내가 배운 게 뭐였지 생각하면서... 먼저 날을 흔들어보고 퍼지도록 시도하죠. 그게 안 되면 손잡이를 당겨 예비 낙하산을 피는 거죠. 그 연습도 수만번 했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머리 이전에 몸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비 낙하산마저 안 퍼지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착지할 때 무리하게 서면 안 되고 몸을 굴러 충격을 완화하란 원칙을 늘 지킨 덕분이죠. 미사리에서 강하하다가 바람이 워낙 세 당초 착지점 대신 한강 한가운데 섬에 내렸다가, 대기하던 보트로 빠져나온 적은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는 따로 있습니다. 강하 시범에서 화려한 모습을 만

들려고 대원들끼리 연결한 와이어가 드물게 영커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커 두 사람이 함께 추락하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사고가 터지면 최악은 사망이죠. 동료들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는 고뇌로 괴로웠습니다.”

-북한에서 3월 15일 김정은이 참관한 공수부대 강하 도중 사상자가 여럿 나왔다고 하던데요?

“낙하산이 기상에 민감하거든요. 바람이 세거나 구름의 고도가 높으면 강하를 취소해야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때문에 강행한 결과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풍속이 가장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 군은 시속 17노트(31km) 넘으면 취소하는데, 거기서 시속 20노트(37km) 이상인데도 강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고, 낙하산끼리 영커면서 예비 낙하산조차 퍼지지 않아 추락해 숨지는 거죠.”

-미군들하고도 훈련해 보았습니까?

“그럼요! 미국에 7번 다녀왔는데 미군들이 ‘한국군 대단하다’고 해요. 그들은 시범 강하 때 고도 2000피트 지점에서 대원들이 분산하는데 우리는 1000피트까지 대형을 유지하거든요. 미국 외엔 우리처럼 강도 높게 강하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는 50대 초반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근 살 없는 근육질이다. 비결을 물었다.

“술을 입에 안 대고, 배부르게 안 먹어요. 매일 새벽 5시 출근해 7km를 달리고 스쿼트-데드리프트 등 근력 운동을 1시간 만 합니다. (쉬고 싶은 날도 있을 텐데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강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끔씩 매일 운동하며 한계 지점에서 더 강도를 높입니다.”

부인도 강하 베테랑... 특전사 잉꼬부부

-어떤 때 보람을 느끼나요?

“말 한마디로 사람 살렸을 때죠. 한 후배가 이탈 직전 낙하산 개방 손잡이가 뒤로 넘어가 있는 걸 보고 제자리에 끼우도록 했죠. 낙하산 못 펴고 추락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후배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고 하더군요. 사소한 절차 하나라도 생략하려는 후배를 보면 ‘안 돼! 다시!’라며 챙기도록 하죠.”

-학벌 등 불이익을 당한 적 없나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나 지연이 좌지우지하는 곳이었다면 진작 그만뒀을 겁니다. (군이 좋은 조직이네요.) 네, 자기가 한 만큼 인정받는 곳이 군대예요. 천신만고 끝에 특전사에 합격해 들어왔는데 약골인 제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20km씩 뛰었어요. 이것도 못한다면 패배자가 될 것이란 생각에 극한으로 몰아붙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2년 차 때 처음 국제시험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너무 출전하고 싶어 다음날부터 새벽 5시에 훈련장에 나와 뛰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대장님(소령)이 보시고 예비선수로 등록시켜주더군요. 그걸 계기로 강하 실력이 일취월장했죠.”

김 원사의 부인 박철순(50) 원사도 고공 강하 베테랑이다. 부부는 29번째 특전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부인의 말이다. “1995년 특전사에 들어가 1년 먼저 와 있던 남편과 훈련을 같이했어요. 낙하산 정리가 같이 굶은일을 솔선수범하고, 후배들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에 반했죠. 99년 국군 최초로 고공 강하 결혼식을 했는데, 두 팔 맞잡고 하늘에서 키스신을 연출했죠.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 infokddc@gmail.com

시 설

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25번째 토론회 주제는 노동약자 보호였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와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계층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이에 앞서 법정 유급휴일인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등은 대부분 평소처럼 일해야 했다. 근로자 노고를 위로하는 잔치에 가장 취약한 노동약자는 초대받지도 못한 셈이다.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1%에 불과하다. 노동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87%의 노조 없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어제 선언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통해 현장에서 계속 국민과 만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전 민생토론회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서울~부산의 10배 넘는 거리(5570km)를 이동했다지만 별 감흥이 없었다.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전 토론회에선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졌다.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재원 대책조차 없는 정책,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논란거리가 많았다. 앞서 가는 대통령 행사에 부처는 허겁지겁 쫓아가며 뒷수습하느라 바빴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처 위주의 국정 운영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현장은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와 조율이 필수적인 ‘현장 행사’는 지난 토론회처럼 보여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정책을 왜곡할 위험도 있다. 최근 서울 영천시장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상인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불만을 얘기하자 대통령은 즉석에서 경제수석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을 떠올리며 걱정할 이가 많았을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은 대통령 어젠다에 어울려야 한다. 장관이 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초청된 국민 얘기도 좋지만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조언과 함께 정부가 선택한 정책 방향을 충실히 알려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여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현실화하고 실행하려면 국민 여론이 공감할 민생토론회로 거듭나야 한다.

시즌2 재개…“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이중 구조 해결” 대통령·장관 역할 구분하고 전문가 참여 공론장 돼야

‘반일 죽창가’ 조국의 독도 방문, 국익에 무슨 도움 주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제 독도를 갑자기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대 국회의 원(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인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은 한 마디로 굶어 부스럼 같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돌출적인 독도 방문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독도에 들어간 조 대표는 “(네이버가 일본에 투자한) 라인야후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마쓰모토 다케아키 장관의 외교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공격하면서 “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물론 12석을 얻은 군소정당의 대표로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 독도를 끌어들인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대응이다. 알다시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일 간에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조 대표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 대표는 과거에도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시절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올리기도 했다. 조 대표가 독도 방문을 강행해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1, 2심 유죄 판결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자격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정치인이 반일 선동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는 일본 정부는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게 만든 셈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해련·민병덕·김병욱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고, 지난해 5월에는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갑자기 독도를 방문해 일본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2012년 8월에는 현직 국가원수로는 사상 처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 이후 한·일 관계에 큰 풍파를 일으켰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다. 정치인들은 독도를 외교 갈등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려는 가벼운 행태를 단장 멈춰야 한다.

검찰 정상화는 꿈이었나

이상언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매며 직무집행을 막기도 했다.

다수의 국민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목적과 방법이 옳지 않은 권력의 검찰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응원했다. 그의 저항이 정의롭다고 믿었다.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다.”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래카메라 녹화와 가방 수수 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다.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검사장) 8명 중 6명이 교체된다. 지난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없었던 민정수석 자리가 부활했다. 대통령은 인사 업무 경험이 많은 전직 기획동 검사를 그곳에 앉혔다. 인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생에 검찰 제자리 찾기 기대했으나 상상 초월 갈등으로 국민 실망

발표 때 강원도에 있었던 이원석 총장은 1박2일 일정 중 뒷날의 계획을 접고 상경했다. 법무부는 ‘공백 해소와 조직 쇄신’을 인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윤 대통령 당선에는 적어도 유권자 48.56%의 국가 정상화 희망이 담겨 있다. 검찰 제자리 찾기가 그중 하나다. 대통령이 권력의 검찰 장악이 빛은 폐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니 이것만큼은 잘 되리라고 믿었다. 검찰의 힘이 너무 세질까 봐 걱정은 했으나 권력과 검찰총장의 충돌 재연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 국민은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 정치의 위력을 깨달은 검사들은 방향을 미리 정한 선택적 수사, 정치적 국면 전환용 과잉 수사에 욕심을 낸다. 빈번히 봐 온 일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 5년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나라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다. 정권, 검찰,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길이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포처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読売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May 15,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노안 돋보기 사용 늦출수록 좋고, 도수도 좀 낮게 해야”

강용홍 분당서울안과 원장 조언
눈 근육 계속 써야 노화 늦어져
백내장 수술 급하게 할 이유 없어
기술·장비 좋아져 수술은 10분 남짓



분당서울안과 강용홍 원장은 “몸이 건강해야 눈도 건강하다”고 강조한다. 강 원장(오른쪽)이 환자의 눈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경기도 분당에서 25년째 분당서울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홍 원장은 백내장 수술 분야 전문가다. 그런데 강 원장은 “백내장 수술은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불편한 정도가 심해졌을 때 해도 된다”고 말한다. 백내장 진단이 나오는 순간 바로 수술을 권하는 병원들과 다르다. 강 원장은 “기술과 장비가 좋아져 수술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줄었고, 수술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백내장은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의 과정이므로 각자 형편에 맞게 수술 일정을 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강 원장은 외과 쪽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우연찮은 기회로 안과를 택했다. 와서 보니 안과도 일반외과 못지않게 치열한 ‘칼잡이’ 현상이었다. 오히려 더 섬세한 감각과 예리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였다. 그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려 애썼고, 수술 장면 비디오를 돌려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고 한다. 강 원장을 만나 눈 건강과 안과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노안(老眼)과 백내장의 차이점부터 설명했다. “노안은 눈의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말한다. 멀리 보는 건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려면 근육을 써야 하는데 나이 들면서 그 근육이 약해지게 된다. 백내장은 ‘노화’의 과정인데 수정체(렌즈)의 투명도가 떨어져서 혼탁해지는 증세를 말한다.”

비문증 70~80% 노화증세, 염증 땀 검사를 강 원장은 “노안이 왔다고 돋보기를 일찍부터 쓰면 노안을 더 빨리 진행시키는 셈”이라고 했다. 모든 근육은 사용해야만 유지가 되는데 돋보기를 쓰면 잘 보

이니까 눈 조절력 근육을 안 쓰게 된다. 당연히 근육이 퇴화하면서 눈이 더 나빠진다는 거다. 강 원장은 “돋보기 사용은 늦출수록 좋고, 쓰더라도 도수를 좀 낮게 해서 눈 근육을 가능하면 많이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체 노화를 진행시키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과 카페인·술, 수면부족 등이 눈 건강에 직결된다고 한다. 감정 상태와 불안증·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눈앞에 날라리들이 떠다니는 듯한 증세(비문증)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강 원장은 “비문증의 70~80%는 나이 들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노화 증세다. 눈 속의 유리체가 부분 부분 떨어지고 녹아서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를 만드는 현상이다. 정영재 기자 > 4면 ‘한약’으로 이어집니다

100세 눈 건강을 위한 꿀팁

- 1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더라도 최대한 나중
- 2 돋보기 도수를 좀 낮게 해서 눈 근육을 사용
- 3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성인병은 눈에 치명적
- 4 불안증·우울증 등 감정상태도 시력에 큰 영향
- 5 선글라스는 옅은 색깔로 여러 개 교대로 착용
- 6 책이든 모니터든 눈에서 10cm 더 떨어뜨려야
- 7 집중해서 뭔가를 오래 본 뒤엔 1~2분은 쉬어야

자료 : 분당서울안과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달리기 최적의 계절, 2시간 전 수분 보충하고 면 티셔츠는 피해야

효과 높이는 러닝 가이드 달리는 다른 운동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멀리 떠날 필요도 없다. 두 발과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뛸 수 있다. 하지만 얼핏 쉬워 보여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게 달리기이기도 하다. 무작정 오래 뛰기만 하다가는 달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달리기 최적의 계절인 봄, 건강하게 잘 뛰는 법을 정리했다.

하지수 기자

달리기 전

러닝화 구입은 오전보다 오후에
달리기로 전신 근육을 오랫동안 고강도로 쓰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운동화는 달리의 유일한 장비다. 뛸 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배가량. 가급적 쿠션이 있는 러닝화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 평발이나 발바닥의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통 오후에 발이 붓기 때문에 러닝화는 오전보다는 오후 5시 이후에 신어 보고 사는 편이 낫다.

옷 선택도 중요하다. 면 소재의 티셔츠는 땀을 흡수해 장시간 달릴 때 옷이 젖고 무거워질 수 있다. 이보다는 땀을 잘 배출하는 기능성 소재에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준비해 둔다.

운동 전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 이상적으로는 체중 1kg당 5~7mL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 몸무게가 70kg이라면 적어도 350m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얘기다. 물을 마시기에 적절한 시점은 운동 2시간 전이다. 수분을 보충하고 마신 물을 배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를 맞추기 어렵다면 달리기 30분 전이라도 물을 두 컵 정도 마셔준다.

뛰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다. 미리 제자리 뛰기 등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심장이나 근육, 대뇌 운동 중추 등을 자극한다. 준비운동은 10~20분 정도 해주면 좋다.

달릴 때

수분·전해질 보충에 신경
본격적인 달리의 시작이다. 건강하게 달리는 기본은 올바른 자세 유지다. 시선은 전방 20~30m를 주시하면서 몸통은 곧게 펴거나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 몸통을 너무 앞으로 숙이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손은 달걀을 하나 든 것처럼 가볍게 쥐고 팔은 'I'자나 'V'자 형태로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장거리 달리를 할 때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과 전해질도 중간중간 보충해 줘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두통과 어지럼,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개인마다 다르다. 운동 환경과 달리기 강도, 개인별 땀 분비량 등이 제각각이라서다. 다만 일반적으로 달릴 때 시간당 800~1200mL의 물을 흘린다고 예측돼 15분에서 20분에 한 번씩은 250mL의 물을 마시길 권한다. 만약 1시간 이상 뛰다면 물에 당분, 전해질 등이 적절히 함유된 스포츠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다.

몸이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 경신을 위해 무리하게 뛰는 일은 삼간다. 자세가 무너지고 부상 발생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달리기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거리를 과하게 늘리면



아킬레스 힘줄염이, 발꿈치에 주는 자극을 증가시키면 발꿈치 피로 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날이 더워질 땀 열경련도 유의해야 한다.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 운동할 때 땀이 갑자기 많이 나고 근육 통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의심하고 달리를 멈춰야 한다. 그늘에서 쉬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도록 한다.

달린 후

근육군마다 30초씩 스트레칭
달리기 후에는 회복도 중요한 법이다. 일단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바로 멈춰 서지 않도록 한다. 극도로 긴장했던 근육이 평소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목표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도 5~10분간은 낮은 강도로 걷거나 움직여준다. 마무리 운동을 하면서 심장박동수도 천천히 내려준다.

스트레칭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근육 부위(근육군)마다 최소 1회, 20~3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준다. 단, 스트레칭할 때는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다. 반동을 주는 자세는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특정 부위가 유독 뻣뻣하게 느껴질 때는 더 자주 스트레칭을 해 풀어준다.

간혹 달리기 후 갈증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이들도 있다.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릴수록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간절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운동 후 과도한

음주는 이노 작용으로 수분 보충을 방해하고 근육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장거리를 뛰고 나서 정강이나 무릎 통증이 지속하면 피로 골절이나 연골 판 손상 등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장시간 운동하는 일을 삼가고 체력을 평소 상태로 되돌리면서 체력 저하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을 막는다. 필요할 경우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

도움말=박계영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전상우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참고 자료=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인을 위한 달리기 가이드라인』

전문의 칼럼 | 이창균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징조’ 염증성장 질환, 점막 치유해야 효과 보여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이 위암을 제치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2위에 올랐다. 대장암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장 질환 역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 감소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특히 염증성장 질환은 대장암 발병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진단 및 치료에 관심이 필요하다.

염증성장 질환의 주된 증상은 만성적인 설사, 복통, 혈변 등이다. 심하

면 식욕 부진, 발열, 구토,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크론병은 이런 증상들에 더해 항문 주위 농양, 치루 등이 동반되는 사례도 흔하다. 설사·복통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단기간에 호전되지 않고 4주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염증성장 질환은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면 증상을 조절하고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5-아미노살리실산(5-ASA,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약제들도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표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을 지닌 생물학적 제제, 소분자제제 등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정맥 혹은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 있고 투여 간격이 길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분자제제는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와 달리 경구제로 복용 편의성이 있다.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제제 모두 염증 완화뿐 아니라 점막 치유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어떤 약제를 어떤 환자에게 투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료의 난제다. 임상 증상의 중증도, 질병 악화의 위험, 동반 증상 및 기저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표적치료제를 결정하고 있다. 점막 치유는 내시경 검사에서 장 점막의 염증이나 궤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질환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점막 치유가 잘 될수록 재발이나 합병증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질환의 좋은 경과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자, 치료 목표이므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13.3%	42.9%	2.3%	0.0%
대우총동	당뇨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 팔목 | 힘없다 | 찢어찢어 | 바닥 못누움 | 영치 | 포리백 | 좌골신경통

허리 | 누우면 통증 | 오래 앉아있지 못함 | 구부리기 힘들다 | 75° | 30° |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 Spasm of finger | 힘이 없어 잡지 못함 | 방아쇠 | 피지지 않음

발 | toes cramps 발가락 저림 | 발목 | 평 |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 plantar aches | 발바닥 통증 |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채소류는 물에 5분 이상 씻고, 냉장고 내 식품은 70% 이하로만

초여름 대비 식중독 주의보 기온 상승과 함께 세균성 식중독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때다. 이맘때부터 배 아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와 달걀·생닭, 국물 있는 고기 요리인 곰탕·갈비찜 등이다. 세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식재료를 만진 다음 손 씻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 문제다. 한번에 많은 양을 조리해 두고 상온에 뒀다 먹거나 열린 고기를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도 균이 좋아하는 환경이다. 식중독은 대개 식사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유아, 면역 저하자, 과로로 육체 피로가 심한 사람은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이 심한 탈수 증세와 패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봄·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 예방법을 알아본다. 이민영 기자



안전한 세척·조리

쌈채소·샐러드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채소류가 자칫 식중독을 일으키는 의외의 복병 중 하나다.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샐러드·쌈야채·겉절이 등의 허브 채소류에 남아 있다가 식중독을 일으킨다. 채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가축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 닿거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경우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다. 조리 과정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 오염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지침에 따르면 채소류는 식초를 넣은 물에 5분 이상 담갔다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는 게 좋다. 잎이 있는 채소는 흐르는 물만으로는 물이 충분히 닿지 않는 곳이 생겨 꼼꼼하게 씻기지 않는다. 물에 담가 채소의 표면에 물이 고루 닿을 수 있도록 한 뒤 흔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좋다. 절단 작업은 세척 후에 한다. 세척한 식재료는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기온이 30~35도로 올라가면 병원성 대장균 1마리가 100만 마리로 증식하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세균이 만든 독소는 가열해도 문제 될 수 있다. 상온에 오래 둔 샐러드는 아예 먹지 않는 게 낫다.

달걀·생닭
달걀·생닭을 만진 후엔 손 씻기를 철저히 한 뒤 다른 식재료를 다뤄야 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달걀·생닭을 만진 뒤

손 씻기와 조리 도구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로 발생한다. 특히 날이 더워지면 몸보신을 하려고 생닭을 사 손질,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다. 여러 식재료를 세척할 때 교차 오염을 예방하려면 세척은 '생채소→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한다. 생닭을 씻을 땐 날로 먹는 채소류와 조리 기구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도마로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려면 조리 도구도 육류용·해산물용·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면 좋다. 구분해 사용하기 어려우면 사용한 도구는 세제로 씻은 뒤 써야 한다. 사용이 끝난 칼·도마는 뜨거운 물로 소독해 보관한다. 달걀은 다른 식재료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갈비찜·곰국 등
국물이 있는 고기 요리를 상온에 잠시 간 두고 먹으면 퍼프린젠스라는 식중독균이 깨어난다. 이 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고기처럼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휴면 상태에 있다가 산소가 없는 약간의 고온(섭씨 43~47도) 환경에서 활동을 개시해 독소를 만든다. 많은 양을 한번에 끓여놓기 쉬운 갈비찜·곰국·카레·달걀음탕·제육볶음 등이 주의 식품이다. 상온에 방치하면 천천히 식는 도중에 퍼프린젠스가 깨어나 증식할 수 있다. 고기를 끓이는 요리는 한번에 먹을 양만큼만 조리해 먹는 게 안전하다. 2시간 이내에 섭취하지 않는다면 전기밥솥에 넣고 70도 정도의 보온 모드에서 뜨겁게 보관해 뒀다가 먹거나 여러 용기에 나눠 담아 빠르게 식힌 뒤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

냉장고 보관 요령

식품 보관에는 요령이 있다. 채소류는 흠이나 이물 질만 제거한 후 씻지 않고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채소류 표면에는 외부 미생물을 방어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상재균이 있다. 세척을 하면 상재균이 제거

돼 유해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줄고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다. 세척한 채소를 보관해야 하면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나 비닐 팩 등에 담아 공기를 차단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생선 핏물은 생선을 빨리 상하게 하므로 씻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식품 안전을 지키는 냉장고 적정 온도는 5도, 냉동고는 -18도다. 냉장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식품은 냉장고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채우고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혀 보관하며 ▶익힌 음식은 상단에, 날 음식은 하단에 보관하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니 금방 먹을 것을 보관하는 게 좋다.

손 씻기·조리도구 세척 자주 해야 냉장고 5도, 냉동고는 -18도 적정 냉동·해동 반복하면 미생물 번식

해동의 기술

냉동했던 식품을 안전하게 해동하는 법을 알아둬야 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춘 세균은 해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식재료는 1회 분량씩 소분해 냉동하는 게 좋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미생물이 번식하므로 해동한 고기는 다시 얼리지 않아야 한다. 고기와 같은 날것은 냉장고에서 서서히 녹이는 자연해동이 가장 좋다. 조리 6시간 전부터 냉장고에 두면 된다. 표면이 말랑말랑해지면 해동이 끝난 것이다. 실온에서 해동하면 먼저 녹은 표면이 장시간 높은 온도에 방치돼 균이 자라기 쉽다. 온수에 해동하거나 물에 담가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도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므로 피한다. 급하게 자연해동할 땐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 흐르는 물에 해동한다.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해동하면 쉽게 녹일 수 있지만 특정 부위만 빠르게 녹거나 고기의 일부가 익기도 한다.

식중독 증상엔 이렇게

식사 정도의 증상이면 수분과 전해질을 챙기면 된다. 설사로 배출한 수분량만큼 충분히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수분·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해 주는 식품은 소고깃국·미역국 같은 국물이다. 꿀물이나 이온음료에 소금을 약간 타서 먹어도 좋다. 물에 타 먹는 경우용 전해질 보충제를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설사·구토는 몸에서 균을 빨리 배출하려는 과정이다. 하루 5~6번 정도의 설사는 일부러 멈추려 하지 않는 게 낫다. 지사제는 설사가 심해 탈수가 오는 경우 탈수를 예방할 목적으로 적정량 사용한다. 만일 설사뿐 아니라 맥박이 빠르게 뛰고 기운이 없으며 어지러운 증상까지 있으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심한 탈수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액 치료 등이 필요하다. 발열과 함께 물 설사가 아닌 콧물 같은 점액변·혈변이 나오면 세균이 장 점막 세포에 감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다. 극심한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 직장 통증, 붉은 소변, 구토가 잦아들지 않을 때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중독의 다양한 원인균과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숫자로 보는 식중독 예방

- 식품 장보기는 **1시간** 이내에
- 채소는 물에 **5분** 이상 담가두고, **3회** 세척
- 조리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
- 식재료 **75도·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 냉동은 **1회 분량**씩 소분해 해동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원 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똑같다? 로봇으로 뼈·인대 살리면 움직임 자연스러워”

인터뷰 한혁수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무릎 인공관절은 로봇 수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는 분야다. 로봇은 정교한 기계적 절삭으로 손상된 부위만 자르는 초정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한다. 요즘엔 섬세한 술기로 건강한 뼈·인대를 보존하는 수술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만큼 고령층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생체역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무릎 운동성 복원이 선호된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에게 최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그는 국내 최초 1세대 마코 로봇 수술 교육 의사 중 한 명이다.

권선미 기자

-언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앓으면 위아래 무릎 뼈는 물론 주변 근육·인대·힘줄 등 연부 조직까지 심하게 뒤틀리면서 변형된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 단계에 주로 수술하던 한국은 연부 조직 변형이 심해 위아래 다리뼈를 단단하게 연결해 무릎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십자인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엔 방사선학적 질병 진행 상태뿐 아니라 나이, 전신 상태, 동반 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점을 개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무릎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 구축이 심해지기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후방십자인대를 제거하지 않아도 돼 관절 안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고유수용감각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새롭게 주목하는 개념이다.”

-똑같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데, 무릎관절 주변의 뼈·인대를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무리 무릎관절을 인공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원래 사람 무릎에 있던 관절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무릎관절 주변의 뼈든, 인대든, 연골이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는 최소 침습적 수술이 바람직하다. 요즘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에서도 활동적인 삶을 원하면서 수술 시점이 앞당겨졌다. 무릎관절의 상태가 예전보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는 “후방십자인대를 보존하는 보존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생체역학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지면서 무릎의 인대·뼈를 보존하는 데 유리한 보존형 인공관절 수술을 시도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고유수용감각이 분포한 후방십자인대를 보존하는 보존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보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다. 보존형 인공관절 수술의 임상적 근거도 많아지고 있다. 2023년 미국 관절 치환술 등록 레지스트리 연례보고서(AJRR, 2023)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관절 제품에 따른 재수술을 살펴봤더니 보존형 인공관절은 대치형 대비 재수술 비

율이 더 낮았다. 다만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관절 손상이 심할 땐 어쩔 수 없이 무릎 후방십자인대까지 제거하는 대체형 인공관절 제품을 써야 한다.”

-로봇 인공관절의 보편화로 보존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해졌다고 들었다.

“그렇다. 보존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절삭하는 과정에서 인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섬세한 수술 테크닉이 필요하다. 최근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늘면서 골 절제량은 줄어들면서 후방십자인대까지 보존하는 수술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로봇

으로 무릎뼈를 3차원 영상으로 시각화·수치화해 개개인의 무릎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뼈·근육·인대 등을 잘라낼 때도 안전 구역인 햄터 존 설정으로 정밀 절삭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최소 절개로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로봇을 활용하는 의사의 역량에 따라 수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로봇으로 수술해도 정밀 절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일반 수술과 다를 바 없다.”

-인공관절을 오래 쓰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가.

“무릎관절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편한 것처럼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개인화(Personalization) 치료가 중요하다. 무릎뼈 절삭 정확도가 높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엉덩이·무릎·발목으로 이어지는 하체 중심축의 균형을 맞추면서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정렬을 찾는 데 유리하다. 일률적으로 11자 모양으로 맞추면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운동역학적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하체 정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릎 통증이 심해도 인공관절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관절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관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변형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현진 진행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하면서 무릎 통증으로 덜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면 자연히 전신 상태가 나빠진다. 운동 등 신체 활동량이 줄어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하기도 한다.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도 약해져 무릎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부르는 연쇄 작용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엔 70~80대도 통증을 참거나 부작용이 많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지내기도 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안전하고 빠른 재활이 가능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도움될 수 있다.”

김동하 객원기자

▶ 1면 '한약'에서 이어집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잊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눈에 염증이나 망막 박리 등으로 인한 비문증인데, 꼭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검염은 눈꺼풀 끝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안구건조증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따갑고 눈 주변이 빨개지기도 한다. 염증의 상태에 따라 먹는 약, 안약, 눈꺼풀 마사지, 레이저 치료 등을 한다. 안

검염은 2~3개월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되는 질환이라고 한다.

한두 시간 집중했다면 1~2분 쉬어줘야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폼 잡으려고 쓴다”며 거부감을 갖는 시선도 있다. 강 원장은 “서양인은 눈동자 특성상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잘 차단하지 못해서 선글라스가 필수다. 동양인의 눈동자는 가시광선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자외선은 색깔을 넣는다고 해서 차단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색

이 진한 선글라스는 눈동자를 커지게 해서 자외선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만든다. 또 비싸게 산 선글라스를 본전 생각 때문에 오래 끼게 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선글라스는 색깔이 옅고 가벼워 부담이 적은 제품을 몇 개 사서 번갈아 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TV 등 영상 디바이스의 흥수 속에서 눈을 보호할 방법을 물었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의 전자파는 눈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보다 냉장고에서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도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근거리에서 뭔가를 계속 보는 게 눈에 큰 노동을 시키는 것이고, 주식시세표 같은 걸 보면서 눈을 안 깜빡이게 되면 눈이 말라버린다.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눈이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책이든 모니터든 눈에서 10cm 정도만 떨어뜨려도 훨씬 편하다. 한두 시간 집중해서 뭔가를 본 뒤에는 1~2분이라도 쉬든지 먼 곳을 바라보는 게 좋다.”

건강한 눈을 백세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 원장이 명쾌한 답을 내었다. “몸이 건강해야 눈도 건강하다. 몸과 마음 상태를 늘 체크하고, 몸에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게 ‘내 몸의 보물’인 눈을 지키는 길이다. 눈에 좋다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제, 눈체조 등도 나쁘지 않지만, 전체 눈 건강의 10% 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너무 여기에 매달리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검진을 받는 게 좋다.”

정영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small>Cataract Laser Surgery</small>	안구 건조증 치료 <small>Dry Eyes Therapy</small>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small>Glaucoma Laser and Surgery</small>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small>Diabetes Laser and Injection</small>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small>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small>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small>Eyelid Surgery (Blepharoplasty)</small>
정기적인 눈 검사 <small>Routine Eye Exam</small>	▶ 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주책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세련 권
703-244-6526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한방 칼럼

최근 기억이 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중년 또는 노년에 있는 분들이 최근에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겨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자주 한다. 이 단계는 치매는 아니고 건망증 단계이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인지 혹은 치매로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서 나타난 건망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치매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미리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치매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내 몸에서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혈액 검사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아밀로이

드 플라크 검사가 있고, ApoE 표적 유전자(Genetic) 검사가 있다.

치매가 나타나기 약 10여년 전부터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으로 인해서 노폐물 생성이 증가한다.

12년은 무증상이나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8년 간 인지장애, 3-6년 경증 치매, 3년 되면 중증 치매 순서로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지장애 시기로 넘어가서, 그 이후가 되어야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이 내려지면 너무 조처하기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검사

치매 예방 (2)



권진열
해민한의의원장

를 미리 받고,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예방책을 써 볼 수 있다.

ApoE 유전자 검사는 알츠하이머 협회의 website <https://www.alzheimersorganization.org/alzheimers-test>에 들어가서

\$125+tax와 처치비를 online으로 지불하면 키트를 받아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검사 및 결과를 알 수 있다.

테스트 키트 내용물에 포함된 것은 테스트 지침, 면봉 3개, 교육 정보 등이다. 교육정보에는 유전자 검사의 작동 원리와 ApoE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테스트 절차는 테스트 키트를 집에서 우편으로 받으면, 면봉 3개를 뺄 안쪽에 묻혀서 검사한다. 면봉을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발송하면 된다. 약 2-4주 후에 e-mail로 검사결과 ApoE 상태의 설명

서를 받게 된다.

염색체에 위치한 ApoE 유전자는 지질 대사에 관련된 지단백을 만드는 유전자이다. E4 형태가 치매 위험 유전자이다. 이 형태를 가진 사람은 삼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4/E4를 가진 사람이 E3/E3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약 10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질병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 치매 발병률이 놀랍도록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 잠자는 습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문의 : 301-922-9239

정신 건강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주로 학령기 아이들에서 나오는 진단이나 요즘은 성인에서 이 문제로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문제가 점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진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 또 경쟁사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더 집중해서 일에 성취를 높여야 하는 사회적 압력도 있다고 보인다.

진단에는 세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우선 주의력 결핍이다. 집중이 안 되고 쉽게 산만해지고 잡생각, 잡념이 끊어진다. 두 번째는 과잉행동이다.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고 수업시간에 계속 말을 한다든가, 신체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든가 등 과다행동을 보인다. 세 번째 측면이 충동성인데, 생각 없이 즉흥적,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경우이다. 세 가지가 모두 있을 수 있고 과잉행동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진단은 임상적인 '병력'을 들어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질문지 등에 의한 검사는 본인이 ADHD가 있다고 진단받고 싶어하는 경우, 거의 의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ADHD 문제로 진료실을 찾는 성인의 경우, ADHD라고 진단받고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로 검사의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유년기부터의 병력을 잘 청취하는 편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진단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해 보면, 먼저 과잉행동이 좀 줄어들고, 다음은 충동성이 좀 잦아드는 경향. 그러나 주의력 결핍은 제일 오래간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소나 완화하는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한다.



김자성
정신과 전문의

주의 집중이란 정신적 상태의 종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ADHD 진단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 혹은 술이나 약물 남용 등이 있는 경우, 우울증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완화하는 요소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 습관은 두뇌에 집중을 필요한 도파민 농도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집중하려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진다.

치료 약물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아토크세틴이 있다. 주로 노어 에피네프린을 증가. 약 효과는 제일 순하고 부작용도 순한 편이다. 가장 일반적인 주류의 약은 메틸페니데이트 계통으로 리탈린, 콘서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효도 부작용도 중간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가장 효과가 강한 것으로는 암페타민 제제로 아데를, 바이벤스 등이다. 이는 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데, 효과도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더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타 부류로는 교감신경계 작용하는 테넥스, 또 항우울제 중에서 웰부트린 등이 쓰일 수 있겠다. 약물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작용, 부작용을 잘 추적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는 동시에 부작용은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엔 혹시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 두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건강 칼럼

각막염에 대하여



이영직 원장
LA 이영직 내과

각막은 눈꺼풀과 눈의 흰자위 사이의 얇은 막이다.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핑크아이(pink eye)'라고 불리는 각막염이 발생한다. 각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앨러지 등 원인이 다양하다.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눈, 코, 입의 체액을 감염시킨다. 손이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서 전파된다. 흔히 먼의 손잡이나 공중전화, 수건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건을 만진 후에 눈을 비빌 때 감염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바이러스성 각막염의 증상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렵고 따가우면서 눈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24-48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 눈도 감염된다.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첫 3-5일 동안 증상이 악화되다가 서서히 좋아진다.

'세균성 각막염'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질 때 전파가 된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폐렴알균(pneumococcus), 포도알균(staphylococci), 연쇄알균(streptococci) 등 흔한 세 가지 균 중 하나가 원인이다. 증상은 바이러스성 각막염과 비슷하지만 분비물은 끈적하고 혼탁하다. 또 눈썹 근처에 딱지가 끼기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분비물이 말라서 눈을 뜰수 없을 때도 있다.

세균성 각막염에 걸렸을 때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 각막염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눈에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검사를 받으도록 한다. '앨러지 각막염'은 앨러지 현상을 유발하는 공기 중 먼지에 의해서 유발된다. 남가주의 경우 2-3월은 나무에서 나오는 먼지, 여름 이후 잔디나 잡목에서 나오는 먼지가

알려지를 유발하는 항원이 된다. 증상은 다른 종류의 각막염과 같이 눈이 심하게 가렵고 눈이 붉게 변한다. 앨러지성 각막염은 주로 양쪽 눈에 동시에 오는 것이 감염성 각막염과의 차이점이다.

'비특이성 각막염'은 앨러지나 감염과 같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 흔한 원인은 눈이 건조하거나 먼지나 화학약품 등에 접촉했을 때 생긴다. 비특이성 각막염은 원인이 제거되면 24시간 이내에 저절로 없어진다.

각막염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된다.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감기와 같이 증상치료를 하는데 항히스타민 성분 안약을 쓰거나 필요할 때마다 더운물이나 찬물로 눈부위를 눌러주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세균성 각막염은 항생제 안약을 7일 정도 사용한다. 호전되는 기미가 없으면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도록 한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는 치료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의사를 봐야 한다.

감염성 각막염을 앓는 경우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더이상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적당하다. 대개 항생제 안약을 사용하지 24시간이 지나면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앨러지성 각막염의 치료는 우선 앨러지의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상치료로는 가려운 증상을 없애는 데는 항히스타민제나 인조눈물을 사용한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양일보**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마리 퀴리’ 제작한 강병원 대표
한국 창작 뮤지컬 중 첫 장기공연
“6월부터 영어버전 초연, 감회 새로워
퀴리에 라둠걸스 사건 픽션 가미
다른 여성서사 작품과 다른 매력”

“몸을 내던져 다 부서지게/저 높은 산
도 잡념까지도~!”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에서
주인공 마리 퀴리(1867~1934)의 솔로
곡 ‘두드려’다. 100여년 전 라둠 연구로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두 차례 수상한
마리 퀴리의 생애를 폭발적 넘버에 담
았다.

이 뮤지컬의 영어판이 뮤지컬 1번지
영국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른다. 6월 1
일부터 7월 28일까지 런던 채링크로스
시어터에서 영어 버전 초연을 올린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웨스트엔드 장기
공연은 이번이 최초다. 영국 공연도 한
국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46) 대표가
리드 프로듀서를 맡았다. 영국 창작진·
배우와 함께 오리지널 각본(작가 천세
은)·음악(작곡 최종운)의 현지화를 진
두지 않았다.

“작품이 흥미로우면 전 세계에 통한
다”는 철학으로 매 작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온 그를 최근 서울 종로구 명륜
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2011년 라이브
를 설립한 그는 ‘총각네 야채가게’의 일
본 라이선스 공연(2013)을 시작으로,
‘마이 버킷 리스트’ ‘팬레터’ ‘행보’ ‘마
리 퀴리’ 등을 아시아 시장에 안착시킨
뒤 영미권 진출을 꾀해왔다. 지난해엔
광주 민주화운동을 담은 창작 뮤지컬
‘광주’의 뉴욕 쇼케이스 공연도 치렀다.

“웨스트엔드 작품 예매 사이트에
‘마리 퀴리’가 있는 게 신기해요. 265석
정도의 소극장이지만, 웨스트엔드 중
심부조. 두 달 간 ‘리미티드 런’ 이후 사
이즈를 더 키워 ‘오픈런’(무기한) 공연
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웨스트엔드 공



1 뮤지컬 ‘마리 퀴리’ 제작자 강병원 대표. “공연 소재 찾는 과정이 즐겁다. 잘 놀수록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말했다.



2 ‘마리 퀴리’ 3번째 시즌 공연 장면. 3 2022년 ‘마리 퀴리’가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 황금물뿌리개상을 받은 모습이다.

연은 2002년 ‘명성왕후’가 처음이다. 한
국 배우들이 열흘간 영어로 공연했다.
그리고 한국 창작 뮤지컬의 웨스트엔
드 장기 공연까지 22년이 걸렸다. 세계
적인 과학사 소재를 시대 화두인 여성·
이민자·노동자 인권 문제로 풀어낸 작
품의 힘이 ‘마리 퀴리’의 장기 공연 성

사 비결로 꼽힌다.
뮤지컬에선 마리 퀴리의 라둠 연구
과정과 라둠시계 공장 여직공 안느가
동료 직공들의 잇따른 의문사를 파헤
치는 이야기가 맞물린다. 1917년 미국
‘라둠 걸스’(라둠 공장 피폭 노동자) 실
화를 천세은 작가가 동시대로 옮겨왔

의 극본을 눈여겨봤다. 라이브는 8년째
이 공모전을 주관해오고 있다. 서울에
대해서 극작을 전공한 강 대표는 뮤지
컬에서 스토리의 매력을 가장 중시한
다. 그는 “요즘 좋은 작품은 여성 서사
가 많은데, ‘마리 퀴리’는 주제적인 여
성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조연(안느)까
지 여성이다. 위인 전기식 서사를 넘어
서 라둠 걸스 등 픽션을 가미한 부분이
돌보였다”고 말했다.

라이브가 제작진을 꾸려 2018년 트
라이아웃 공연을 올렸고, 2020년 국내
초·재연을 통해 작품을 재정비하며 한
국뮤지컬어워즈(2021) 대상 등 5관왕
을 휩쓸었다. 올 2월까지 세번째 시즌
을 공연하면서 김소향·옥주연·리사·김
히어라 등 스타 뮤지컬 배우들이 거쳐
갔다.

‘마리 퀴리’가 해외 무대에서 검증
받은 건 2022년 폴란드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 격인
‘황금물뿌리개상’을 수상하면서다. 마
리 퀴리 생가 박물관에서 콘서트·토크
쇼도 열었다. 마리 퀴리의 후손 한나 카
레제프스카가 공연 영상을 관람한 뒤
“아름답고,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
는 공연”이라고 극찬했다.

한국 뮤지컬의 급성장에 맞춰 활
발해진 정부 지원의 덕도 봤다. ‘마리
퀴리’는 2022-2023년 웨스트엔드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하이
라이트 및 전막 쇼케이스를 열며 진출
기반을 닦았다.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된 작품은 대부분 일본·중국·대만 등
에 수출된다. ‘마리 퀴리’도 지난해 일
본 도쿄·오사카에서 라이선스 초연을
가졌다. 뮤지컬 IP로 영화·드라마·웹
툰·소설을 제작하는 2차 부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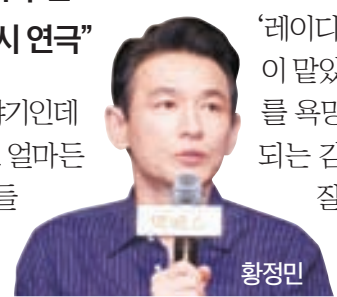
“지난 13년 간 제작한 작품 15편 중
흥행 성공작은 ‘팬레터’ ‘행보’ ‘마이 버
킷 리스트’ 세 작품 정도입니다. ‘마리
퀴리’도 아직 투자 과정의 작품이고, 향
후 공동 제작에 참여할 글로벌 프로듀
서도 찾으려 합니다.” 나원정 기자

배우 황정민이 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
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연극 ‘맥베스’(연출 양정웅) 제작
발표회. 황정민은 “제겐 무대가 힐링”이
라며 “이런 감정들 때문에 다시 연극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7월 13일 개막하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맥베스를 연기한다. 연극 무대는 2022
년 ‘리처드 3세’ 이후 2년 만이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

전두광 이어 또 욕망의 캐릭터... 황정민, 2년만에 연극 복귀

스’는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왕
이 될 거란 마녀의 예언을 듣고 국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뒤 서서히 파멸
해가는 이야기다. 양정웅 연출은 “헤어
나올 수 없는 욕망에 손을 댄 이후 찾아
오는 상실감과 죄책감을 잘 표현한 작
품”이라고 ‘맥베스’를 소개했다. 연극 복
귀작으로 고전을 선택한 이유를 황정민

7월 13일 개막 ‘맥베스’ 서주연
“무대가 힐링... 그래서 다시 연극”
은 “몇백 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도 재밌다”며 “현대적으로 얼마든
지 각색할 수 있어 예술가들
에게 계속 사랑받는 것 같
다”고 설명했다.



맥베스의 욕망을 일깨우는 아내
‘레이디 맥베스’ 역은 김소진
이 맡았다. 김소진은 “무언가
를 욕망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 변화를 관객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려내고 싶다”는 포부
를 밝혔다. 맥베스의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동료 ‘뱅크우’는
송일국이 연기한다. “너무 멋진 역할이
라 부담이 크다. 살부터 열심히 배웠다”
고 너스레를 떠 송일국은 “2016년 국립
극장에서 연극 ‘햄릿’을 보고 평평 울었
다. 노배우들이 빈 객석을 향해 등지고
서는데, 배우의 길을 걸으신 어머니(김
을동)가 떠올랐다. 바로 그 무대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
했다. 홍지유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한의사 (NCCAOM)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가정의달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톡톡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진정-보습-건조예방 3중 케어, 저자극 포뮬러의 쫄쫄한 텍스처

피부탄력강화 지선체™가 2배 함유, 2배 더 탄탄한 피부로!
Sulwhasoo 설화수 탄력크림 75ml

2개 구매시 \$10 할인 **\$148** 1개 **\$79**

XXIO NEW 2024 다이아윈스 골프공 [6구 증정]

새로운 **BIFLEX FACE**와 진화된 **New Active Wing**
젝시오13 여성용 아이언세트 5pcs

5pcs 여성용 세트구성: 7Iron, 8Iron, 9Iron, PW, SW **\$1099.99**



전용쇼핑백 증정 전통원료와 침향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

침향나무, 녹용, 홍삼, 로얄 젤리, 재배산삼 뿌리 등 15가지 원료
김소형의 침향환 녹용 골드 90환 × 3.75g

67% 파격세일 3개월분 ~~\$300~~ **\$99.89**



한국산 탱크리스 비데 / 자동 노즐세척, 기존 대비 47% 절전형

온수, 온열시트, 온풍 3단계 조절, 8버튼으로 손쉽게 사용
리빙스타 비데 5900 일통게이트

길이 20.27인치 × 너비 17.40인치 ~~\$259.99~~ **\$159.99**



블루투스 음악재생 지치고 피로한 눈에 매일 15분 휴식!

온열과 공기압 마사지, 180도 폴딩, 5가지 모드 변환
휴비딕 FE-4619 안구마사지기

HuBDIC FE-4619 Eye Massager ~~\$59.99~~ **\$39.99**



신세계, 현대, 신라 면세점 입점 제품, 고형분 60% 이상 함유

100% 국내산 프리미엄 6년근 홍삼, 5대 기능을 한포에 고농축!
홍삼가건보 6년근 고려홍삼정 로얄

런칭기념 2+1 세일 ~~\$297~~ **\$198**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거짓말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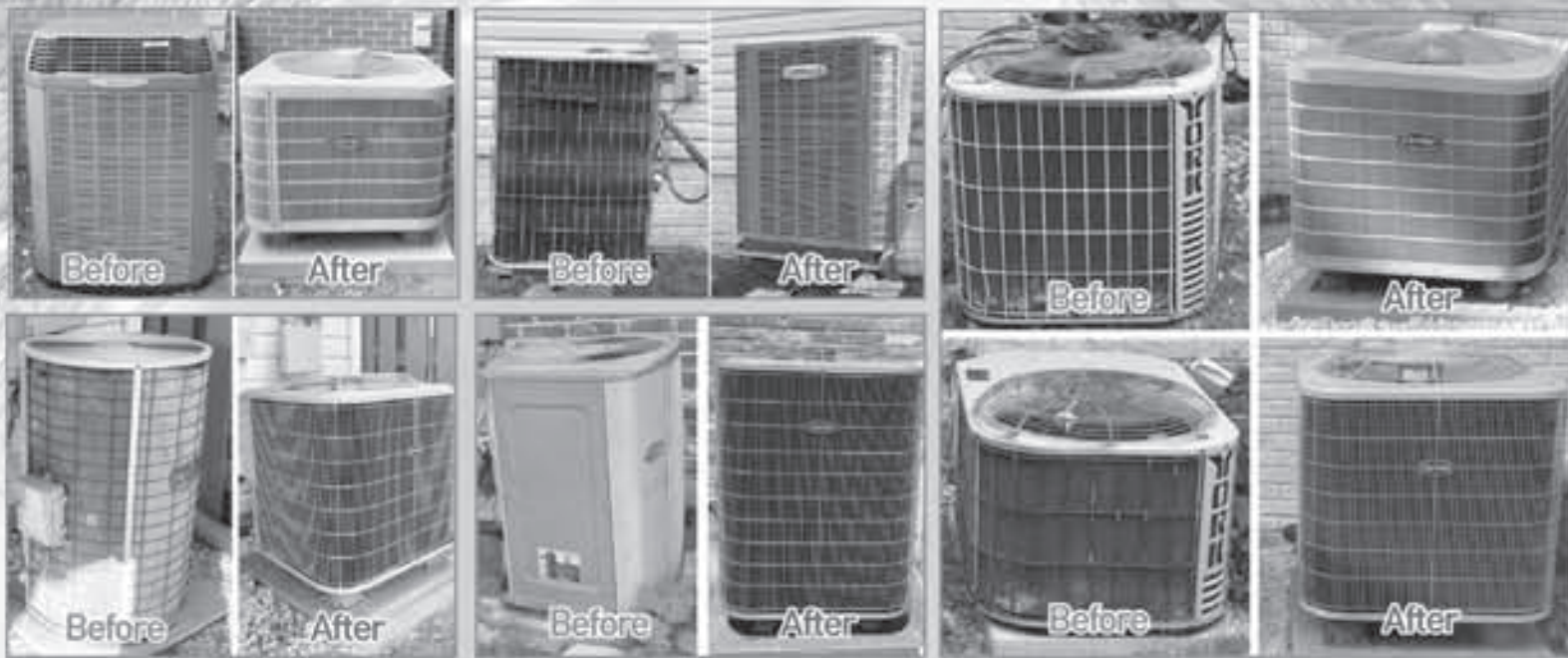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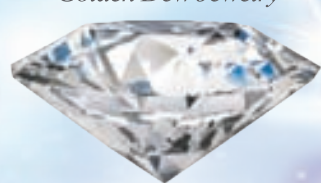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로 행복해집니다



주방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 dc.thekoreadaily@gmail.com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on't remind me: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상기시키지 말아주세요

(Dan is in Seattle talking to Roger in Los Angeles. They are old friends~)
(시애틀에 사는 댄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로저와 얘기한다. 둘은 오래된 친구다~)

Dan: So our 60th birthday is coming up soon.
댄: 우리 둘다 이제 곧 환갑이네.
Roger: Yes don't remind me.
로저: 그러게 뭐 상기시키지 않아도 돼.
Dan: Why? Do you feel bad about turning 60?
댄: 왜? 환갑 되는게 싫어?
Roger: No not really. I'm just kidding.
로저: 아니 그런 건 아냐. 그냥 농담이야.
Dan: How about getting together?
댄: 같이 만나는 건 어때?

Roger: Do you want to fly down to Los Angeles or should I fly up to Seattle?
로저: 자네가 로스앤젤레스에 올래 아니면 내가 시애틀로 올라갈까?
Dan: Either way is fine with me.
댄: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Roger: Well I just flew back from New York and saw my family.
로저: 글썽 나야 뉴욕에서 가족을 보고 막 돌아와서.

Dan: So I'll fly down to L.A.
댄: 그럼 내가 L.A로 내려갈게.
Roger: Okay. So fill me in on how you're doing.
로저: 좋아. 그럼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나 해줘.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is coming up: 곧 돌아오다 ~가 열리다
"Your wedding is coming up isn't it?"
(이제 곧 자네 결혼식이지만 그런가?)
▶ turn a particular age: ~(나이) 가 되다

"Next week my daughter is turning three."
(다음주면 우리 딸이 세 살이 된다네.)
▶ fill (one) in on (something): ~에게 소식을 전해준다
"I need you to fill me in on what's been going on since I came back from vacation."
"내가 휴가에서 돌아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가로열쇠

(1)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는다는 다리 (3)전자 우편 (5)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 (7)세력이나 학문 따위가 뛰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 정계의 ~ (8)집터나 뒷자리를 가려서 고르는 사람 (10)소나무 열매의 송이 (12)살이 찌서 몸이 뚱뚱함 (13)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내 (15)양보나 굽힘이 없이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파 (16)콩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원료 (17)얼부풀어서 더덕처럼 마른 복어 (18)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함 (21)국경일, 일요일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24)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각 역정을 내는 짓 (25)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27)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씨 (28)큰 종을 달아 두는 누각 (29)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31)용이 되려다 못되고 물속에 산다는 구렁이 (32)녹색 식물의 세포 안에 있는 색소체

세로 열쇠

(1)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 □합□□ (2)교사가 쓰는 가느다란 막대기 (3)배의 머리 쪽 (4)하나의 물결이 연쇄적으로 많은 물결을 일으킴. 한 사건이 많은 사건으로 번짐 (6)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 식구 (7)화장이나 면도를 할 때 들여다보조 (9)대변을 보게 하기 위하여 약물을 황문으로 넣는 일 (11)과거나, 독으로 둘러막은 못. 여름이면 동네 앞 ~에서 미역을 감았다 (12)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14)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 (15)낚시질하는 사람 (18)남이 모르게 꾸미는 계획이나 일. □□□□ (19)비자 (20)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자원 ~ (22)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 (23)한마음 한 몸. 서로 굳게 결합함 (25)소리를 느끼는 감각 (26)조개 속의 보석 (28)피부에 생기는 염증. 부스럼 (30)말라서 떨어진 나뭇잎.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을 몬다(나태주)

스도쿠

	4					8	1
8	1	5		7		6	
6						4	
		3	7			2	
			6		5		
	9				1	7	
		1					8
	7			1		3	9
4	6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5	1	2	3	6	8	9	4
4	6	3	9	1	8	2	2	5
8	7	9	2	4	5	1	3	6
5	4	2	1	8	3	9	6	2
3	1	6	5	2	9	4	8	7
9	2	8	4	6	2	3	5	1
7	3	4	8	5	1	6	2	9
6	9	2	3	7	4	5	1	8
1	8	5	6	9	2	2	4	3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카드 번호 EXP. DATE: / / CVS: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지역

매매 구인 구인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유명한 비즈니스 비치가
선글라스 안경+잡화
전망좋은 장소에서
삶을 찾아보세요
부부직할가 15만(Invoice)
(310)266-8086

Senior Manager:
Manage sales strategies and
operations: Bachelo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Kumho Tire U.S.A., Inc.,
133 Peachtree St. NE, Ste. 2800,
Atlanta, GA 30303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풍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유희유 젤

1-213-210-9720, 전화, 보이스톡, 카톡, 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주 최대 40%
할인 행사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행복한 사연 꼭 보세요

이메일: YP518119@gmail.com
Tel. 714-733-3206 "카톡, 텍스트 메시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Dr 박"

돈은 은행에 있다고 사업이 아니지요. 보관과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 유이트 메디칼 그룹 병원 닥터 박입니다. 본인일도하고 당신 돕고 하는 저의 계획은 10만불 2500불, 20만 5000불을 매달 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없이 은행에 돈이 있고 1원도 남에게 주지않고 추라스트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하며 당신이 언제든 찾아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법으로 단단히 지켜줍니다. 한국에서도 ok 특히나 유학생및 노인은 자기돈 은행에 잘 보관하고 저가 돕는 돈으로 공짜로 몇배 행복한 생활하시면서 살다가 원금을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자식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데 받는것 좋으나 부모를 돌본다는것 그들은 가난해요 효도 없어요. 또한 10만불로 사업하세요. 돈은 가지고 있고 매달 2500불 행운입니다 1밀리언 되면 10명 되면 접겠습니다. 서로 이런일이 진행되면 집과 돈도도우려 합니다. 모두 모이면 40일후 매달 저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10만 예금 시 \$2,500 매년 \$2.5만 \$20만 예금 시 \$5,000 매년 \$5만 \$1밀리언 예금 시 \$25,000 매년 \$25만

보통 은행 예금처럼 아무때나 원금 찾아가면 됨(계약 없음)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임 학생, 노인등등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준비된 자에게 돕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자에게는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며, 사기도 아니고 마음 믿어준것이 감사합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정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MD의사입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더 나은 생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행복을 주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